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 지역 무역업체의 전자무역결제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E-trade Payment Systems of
Local Trading Firms in Jeju**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貿易學科

文 鍾 日

2018年 8月

제주 지역 무역업체의 전자무역결제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E-trade Payment Systems of
Local Trading Firms in Jeju**

指導教授 許 允 碩

文 鍾 日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6月

文鍾日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委 員_____

委 員_____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2018年 6月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E-trade Payment Systems of Local Trading Firms in Jeju

Jong-II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Yun Seok Hur)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June. 201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
June. 2018.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5
제1절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5
1.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5
2.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	7
제2절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개념	11
1. 전자무역의 개념	11
2. 관련 개념 및 전자무역과의 관계	12
3.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도입 배경 및 의의	14
4.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운영 원리	16
5.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변천 과정	19
제3절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특성 및 요건	22
1.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특성	22
2.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요건	23
제4절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활용 현황	26
1. 우리나라 수출결제방식 현황	26
2. 우리나라 수입결제방식 현황	36
제5절 선행연구	43
1. 전자결제 관련 선행연구	44
2. 무역결제 관련 선행연구	45

제 3 장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대금 결제 현황	47
제1절 제주지역 무역 현황	47
1. 제주지역 수출 동향	47
2. 제주지역 수입 동향	49
제2절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대금결제 현황	55
제3절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대금 결제 변화 요인 및 시사점	64
1. 대금 결제 변화 요인	64
2. 결제방식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71
제 4 장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전자결제시스템 활용 활성화 방안	80
제1절 법제적 활성화 방안	80
제2절 운영적 활성화 방안	82
제3절 정책적 활성화 방안	86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89
참고문헌	94
국문초록	98
Abstract	99

< 표 차 례 >

<표 II-1> 결제방식별 수출입구조 비중 추이	6
<표 II-2> 대금결제방식별 현황(수입)	6
<표 II-7> 기존 무역 결제시스템과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비교	23
<표 II-8> 우리나라 수출입 실적 규모	27
<표 II-9> 수출결제방식 변화 추이	27
<표 II-10> 결제방식별 수출금액	28
<표 II-11> 결제방식별 수출비중	29
<표 II-12> 기업규모별 수출입 결제방식 비중 추이	30
<표 II-13> 2015년 주요 수출대상국 결제방식 비중 현황	32
<표 II-14> 주요 국가별 수출현황	32
<표 II-15> 품목별 수출결제방식 변화	34
<표 II-16> 주요 수출 품목 결제 현황	35
<표 II-17> 결제방식별 수입 비중 추이	37
<표 II-18> 지역별 수입결제방식 변화	38
<표 II-19> 주요 국가별 수입현황	39
<표 II-20> 품목별 수입결제방식 변화	40
<표 II-21> 우리나라 주요 수입품목 변화	42
<표 III-1> 제주지역 구조별 수출실적	47
<표 III-2>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48
<표 III-3>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49
<표 III-4>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	50
<표 III-5> 주요 국가별 수입실적	50
<표 III-6> 수출 1,2위 품목 점유율	51
<표 III-7> 공산품/농수산물 수출추이	53
<표 III-8> 2018년 수출입 전망	54
<표 III-9> 2017년 제주지역 무역업체 결제대금 현황	56

<표 III-10> 2010년 제주지역 무역업체 결제대금 현황	58
<표 III-12> 최근 5년간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현황	72
<표 III-13> 신용조사 실시 실태	73
<표 III-14>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방법	74
<표 III-15> 국내외 신용조사 기관	74
<표 III-16> 대금결제관련 사기 유형	75
<표 III-20> 소액결제 제도의 특징	78

〈 그림 차례 〉

[그림 Ⅱ-3] KITA ePAY 이용절차	10
[그림 Ⅱ-4] KOPS 의 정산절차	10
[그림 Ⅱ-5] EDI 폐쇄형 운영 시스템	18
[그림 Ⅱ-6]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변천과정	21
[그림 Ⅲ-11] 결제방식별 미수금 발생 비중	71
[그림 Ⅲ-17] 서류인도 결제방식에 의한 거래	76
[그림 Ⅲ-18] 상품인도 결제방식에 의한 거래	77
[그림 Ⅲ-19] 선적서류(B/L) 사본을 활용한 신속거래 이용	7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무역거래에 있어서 결제방식의 선택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결제방식은 주로 신용장방식과 송금방식 그리고 추심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제무역의 발달 과정 속에서 무역거래의 참가자들은 시간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해내는 혁신적인 기술과 패러다임의 발달을 끊임없이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고 시장규모의 확대를 촉진하였으며, 컴퓨터 기술이 보편화 되고 전자화된 문서의 유통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이 무역거래에 활용되면서 기존의 무역관행에 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거래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직접적인 대면접촉, 계약서, 신용장(Letter of Credit)등을 매개로 하여 매매계약이 이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은행, 세관, 운송회사, 보험회사 등 제3자 서비스기관이 개입하게 된다.

그런데 주 계약인 물품매매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무역거래대금의 결제는 그 특성상 신용위험과 상업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이에 따라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고 원활한 무역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환어음을 활용 하고 신용장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국제무역의 발달 과정 속에서 무역거래의 참가자들은 시간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해내는 혁신적인 기술과 패러다임의 발달을 끊임없이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고 시장규모의 확대를 촉진하였으며, 컴퓨터 기술이 보편화 되고 전자화된 문서의 유통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이 무역거래에 활용되면서 기존의 무역관행에 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전통적 무역거래 관행의 근간이 되는 무역 관련 법규와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무역거래의 필수요소인 서류 및 결제분야의 전자화를 비롯해

전 과정의 전자화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¹⁾ 2015년 G20 국가 중 독일 70.85에 이어 69.93으로서 2위를 나타내고 있을 만큼 매우 높고 IT 기술의 도입 및 발전이 빠른 국가이기 때문에 전자무역에 대한 투자 및 시스템의 구축은 빠르게 이루어져 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UNECE의 페이퍼리스 트레이드 로드맵 5단계 중 가장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는 5단계에 해당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결제분야의 발전 정도 및 활성화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은 현재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JP모건은 전통적인 금융회사였다. 전통적인 금융회사인 JP모건에서도 엔지니어 및 기술개발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전통적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능을 제공하고, 자금배분을 개선시키며, 또 통화 신용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그러한 변화를 여러 방향으로 전달하는 경로가 되기도 한다. 즉, 안정성과 효율성을 구비한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대금결제방식의 변화요인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장방식과 무신용장방식인 송금방식, 추심방식(D/A, D/P)의 결제변화 추이에 대한 기업규모별, 품목별, 수출대상 국가별 변화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무역거래의 지급결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수출 및 수입형태가 송금방식 결제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보면 선박수출의 경우에는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으로서 순수한 송금결제 방식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대기업 위주의 본 지사 간 결제나 Open Account방식²⁾은 송금방식의 결제로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본·지사 간 거래는 D/P 방식으로 처리하고 Open Account방식은 상계결제 방식으로 송금방식과 구분해야

1)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 OpenAccount방식은 수출업자와 수입자간에 물품이 제공되어 인도가 이루어진 후에 합의된 일정기간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된 기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결제방식이다. 이는 선적서류가 인도되어 물품을 수입자가 인도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으로서 주로 본 지사 간 거래나 단골거래처의 경우에 사용된다.

한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국제결제 형태에 있어서 단순송금방식의 대폭적인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미수금의 증가 내용인 대응책을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와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지급결제 방식의 변화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 및 제주도 무역업체의 수출입거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논문을 쓰게 되었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문헌적 연구와 통계자료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적 연구를 위하여 국내관련 학술논문, 무역관련 보고서 및 자료를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비교검토를 병행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서는 무역협회, 관세청 및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원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변화추이를 검토하였다. 결제 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서는 국내 문헌뿐만 최근 발행 자료에 많이 의존하였다.

특히 국내논문은 거의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수출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입결제방식 변화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었으며, 제주지역의 수출입 관련 논문 및 문헌자료 역시 거의 자료가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출결제방식 뿐만 아니라 수입결제방식의 변화도 동시에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나라 무역거래 및 수출입결제방식의 변화와 제주지역 전체 수출입액 대비 결제방법의 비율을 비교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결제방식 금액의 변동사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결제방식의 변화요인을 최근 자료에 의하여 다시 분석하고 수입결제방식의 변화요인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무역협회 등 무역유관기관의 통계자료를 원용하여 과거 10년간 수출입결제방식의 변동관계를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결제방식인 신용장방식, 송금방식 및 무신용장방식의 특성과 한계 그리고 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은 수출입대금 결제방식의 변화와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특성 및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활용현황을 기술하기로 하였다.

제3장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대금 결제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제주지역 무역의 현황 및 무역업체의 대금 결제 현황을 분석하고 무역대금의 수출입 결제방식의 변화의 요인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하겠다.

제4장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무역 현황 및 대금결제 현황에 대하여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로 하겠다.

제5장 결론 부분으로서 이러한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향후전망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제1절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1.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1) 전통적 지급 결제방식의 변화

전통적 지급결제 방식은 신용장, 송금, 추심의 방법이다. 이러한 전통적 지급결제 방식은 지난 10여년 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16년 한국무역협회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전통적 지급결제방식은 단순송금방식(T/T, M/T) 방식이 2,833만 달러 규모로 총 수출의 57.2%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16.9% 포인트 증가하여 신용장을 활용한 대금결제 방식보다 송금방식이 더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주간무역, 2017.7.21.) 단순 송금방식은 수출업자에게 가장 안전한 대금회수 방식이다. 대금을 받고 상품을 만들어 선적하기 때문에 같은 송금 방식인 동시지급송금방식(COD, CAD)의 경우보다 안전하다. 실제로 2006년 15.7%의 비중이던 동시지급송금방식은 2016년 9.9%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 두 가지 송금방식을 합치면 67.1%로 전체 수출의 약70%가 송금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한국무역신문, 2017.7.21.) 면 신용장 방식은 일람불과 기한부 결제를 모두 합쳐도 10% 이하로 낮아졌다. 1990년대 신용장 방식의 수출 비중이 60%가 넘어 ‘신용장 내도액’이 수출 선행지수로 활용 되었는데 불과 20여년 만에 송금 방식에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 추심방식(D/A, D/P)의 수출 비중은 2006년 9.8%에서 2016년 9.4%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한국무역신문, 2017.7.21.).

3) http://www.kita.net/newsBoard/domesticNews/view_kita.jsp?sNo=42955(한국무역협회 기사검색, 2017.7.21.)

<표 2-1> 결제방식별 수출입구조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1996년		2006년		2016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송금방식	29.3	42.6	56.0	57.2	67.1	69.7
추심(D/A, D/P)	24.9	22.9	9.8	10.8	9.4	12
신용장(L/C)	43.1	76.1	19.0	18.2	9.4	17.8
기타	2.7	6.7	15.2	13.8	14.1	0.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무역신문, “송금방식 수출비중 70% 육박”, (2017.7.20.)

수입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송금방식의 비중이 69.7%, 신용장은 17.8% (일람출급 6.6%, 기한부 11.2%), 추심방식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용장의 비중이 2006년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다.

<표 2-2> 대금결제방식별 현황(수입)

(단위 : 억달러, %)

구 분	신용장방식		송금방식		추심방식		기타방식		총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1년	531	65	31	4	8	1	243	30	813	100
1995년	76	5	749	52	64	4	554	39	1443	100
2000년	106	7	843	53	115	7	539	33	1603	100
2005년	753	17	2758	63	575	13	265	7	4351	100
2010년	563	17	2070	64	371	11	225	8	3229	100
2013년	777	15	3648	71	402	8	327	6	5154	100
2014년	1034	20	3746	71	114	2	359	7	5253	100
2015년	821	19	3037	70	112	2	393	9	4363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재인용(2016.6)

2) 전통적 지급결제 방식의 변화원인

전통적 지급결제방식이 신용장 결제에서 송금 결제로 변화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장 관련 수수료가 송금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seller가 미국의 buyer에게 10만 달러 수준의 수출을 한다면 표준추심일 수 10일, 클린 네고를 가정하고 우편료, 매입수수료, 통지수수료, 환가료를 포함 약 120, 000원이 소요되지만, 송금의 경우 수출대금의 0.1% 수준이므로 10,000원 수준으로 수수료로 급감하게 된다.

둘째, 무역결제를 사용하는 업계의 인식 변화이다. 과거에서는 비용절감보다는 위험관리가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비용 및 시간적 효율성을 우선시 한다.

즉, 과거에는 매수인의 불확실한 신용을 대신해 은행의 지급확약이 있는 신용장 결제 방식이 선호되었지만, 현재는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신용장 결제보다는 송금 결제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다.

셋째, 신용장 거래의 복잡성 때문이다. 대금결제까지의 시간도 길다. 신용장거래서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약 15일이 소요된다. 신용장 매입중 서류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1건에 2~3일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신용장을 활용할 경우 대금결제까지 평균 15~17일이 소요된다.

넷째, 기업 내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기업 내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63.9% 수준이었는데 2016년 80%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무역결제에 있어 상대방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신용장 비중보다는 간편하고 신속한 송금결제 방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2.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전자신용장, TSU/BPO(Trade Service Utility/Bank Payment Obligation ; 이하 TSU/BPO), BOLERO(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 ; 이하 BOLERO) 등 기존 결제 체제의 전자화이며 다른 하나는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의 전자적 형태의 결제수단이다.

1) 전자신용장

1990년대 지급결제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던 결제방식은 은행을 활용한 신용장 방식이었다.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해 지급확인을 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⁴⁾

현재는 점점 그 비중이 낮아져 전체 10% 수준이다. 사용이 낮아졌다고 해서 신용장 방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거래 상대방의 신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신용장을 활용할 수 있다. 단지 기존의 종이기반에서 전자기 반으로 이동하고 있다. SWIFT의 BPO는 은행의 지급보장을 전자무역 시스템에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⁵⁾

2) TSU/BPO

SWIFT는 2008년 은행과 은행의 모든 거래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하여 전자정보 일치시스템(TSU)을 완성하여 무역서류의 전자화를 구현하였다.⁶⁾ 그런데 무역거래 당사자는 은행의 지급확약을 통하여 안정성을 보장받지만 open account 방식에서는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으므로 매도인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TSU에 은행의 지급확약(BPO) 기능을 부여하여 무역결제 수단으로 활용 하였다. 이것이 TSU/BPO 방식이다(남현숙, 2016:69).⁷⁾

3) 볼레로(BOLERO)

볼레로는 기존의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스템이다.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물품이 선하증권보다 먼저 도착하자 지급결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시스템은 Bolero Rule Book에 따라, 코어 메시징 플랫폼(core message platform)과 권리등록부(title

4) 김태환 (2012), “전자결제 인프라 현황과 향후 전망”,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3호, p.586.

5) 채진익 (2011),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SWIFT의 TSU BPO의 도입과 과제”, 『무역상무연구』제49권, p.409-411.

6) SWIFT, Trade Services Utility-Helping banks meet the supply chain challenge, TSU factsheet,2008,<<https://www.swift.com/our-solutions/corporates/drive-trade-digitisation/the-trade-services-utility>>

7) 남현숙(2016), “전자무역결제제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p.69.

registry)를 이용하여 증권의 발행, 권리이전, 유통, 증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시간과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물류 분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자동화로 인해 오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4) 전자자금이체

전자자금이체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지급결제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은행에 계좌를 통해 현금의 이동 없이 자금을 이체한다. 김재두(2014)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⁸⁾

5) 신용카드 방식

일반상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무역거래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KITA ePay’, 코트라(KOTRA)의 ‘KOPS’는 소액 거래에 사용되는 B2B 결제시스템으로 비자·마스터·JCB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tradeKorea를 통해 판매하는 기업 회원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수출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서비스(KITA ePa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가 tradeKorea를 통해 수출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제대행사인 엑심베이(EXIMBAY)서비스에 가맹점 가입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KITA ePay는 일반결제와 협의결제로 구분되는데, 일반결제는 바이어가 상품검색 후 셀러가 등록한 가격 그대로 결제하는 경우이며, 협의결제는 셀러와 바이어가 상품 가격을 협의하고 결제하는 경우이다. 결제 형태에 따라 이용절차가 조금 다르다.

8) 김재두(2014), “전자자금이체의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p.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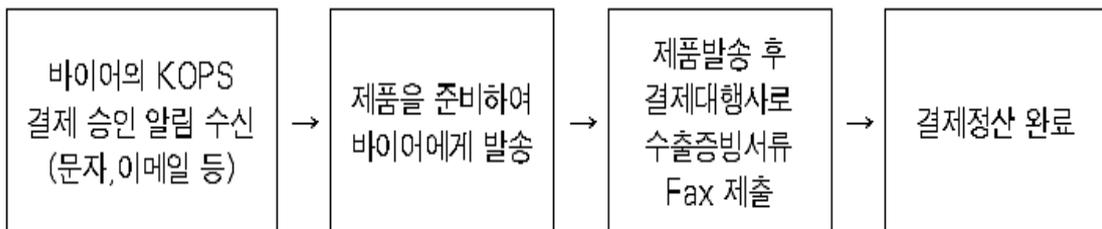
<그림 2-3> KITA ePAY 이용절차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PS Pay는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이다. 해외바이어가 무역대금을 신용카드 로 결제하면 수출기업의 은행계좌로 수출금액이 송금된다. 국내 판매자가 KOPS 서비스 오픈 회원이라면 바이코리아에서 견적서를 작성해서 구매자에게 송부 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받은 견적서를 이용해서 바이코리아에서 신용카드 로 결제할 수 있다.

<그림 2-4> KOPS 의 정산절차



자료 : KOTRA

6) 전자화폐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정의를 보면 전자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저장된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선불형 전자지급수단 중 일정이상의 범용성과 환금성을 갖

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은행, 2016:79).⁹⁾

한국은 금융결제원과 국내 은행이 개발하여 운영하는 'K-CASH'가 사용되고 있다. K-CASH로 현금을 충전하여 상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시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디지털 카드이다.

K-cash는 IC칩 기반의 다기능 카드로 전자화폐 기능, 신용/직불카드 기능, ID기능, 공인인증서 저장이 가능하다. 일반 가맹점을 비롯하여 온라인 가맹점에서의 물품구입, 교통카드(버스, 지하철)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전자화폐 중 유일하게 국가(국정원)에서 제공한 보안 알고리즘(SEED) 및 키 관리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의 보안성 및 신뢰성이 공인되어 해킹 등 부정사용의 위험이 없다.

제2절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개념

1. 전자무역의 개념

우리 대외무역법에서 무역은 물품,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¹⁰⁾. 그리고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무역법)에서는 전자무역을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 문서로 처리 되는 거래”로 정의한다.¹¹⁾ 그리고 전자무역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¹²⁾

따라서 전자무역법상 물품,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에 따른 무역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수신 또는 저장 처리되면 전자 무역법상의 전자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자무역은 시장조사, 협상, 계약의 체결, 통관, 물류, 보험, 결제에 이르는 국제 거래의 전부나 일부 프로세스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

9) 한국은행 (2016), “신종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p.79.

10)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11) 전자무역촉진법, 제2조, 제1호.

1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¹³⁾

전자무역은 보통 인터넷무역, 무역자동화, 온라인거래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비즈니스(e-business)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수한 형태로서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2. 관련 개념 및 전자무역과의 관계

이비즈니스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비즈니스를 일률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비즈니스가 가진 특성을 보면, 이비지니스는 기존의 기업 경영방식 등에 새로운 기술과 프로세스를 더하고 응용하여 기존의 경영 방식을 향상, 발전, 대체한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닷컴은 중고책 서점이라는 기존의 판매방식에 온라인을 접목하여 신사업을 발굴한 것이고¹⁴⁾ 기존에 없던 방식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비즈니스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와 통신기술들을 포괄한다.¹⁵⁾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이나 일본의 서점에서 책을 산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발간되었으나, 한국에서 발간되지 않은 책을 구입하려면 그 나라에 가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미국이나 일본의 서점에서 필요한 책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은 각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국외시장 에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제약을 변화시켰다. 한국에 있는 국제투자 자가 미국의 증시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국내 주식이나 유럽의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24시간 가능하다. 이렇듯 이비즈니스는 시간과 공간 적인 제약에서 자유롭다. 이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교환하고 이에 따라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을 크게 변화시켰다. 즉 물리적 생산용량을 늘리기보다는

13) 안병수 · 조상현 · 류승열 · 김수홍 · 박윤희 · 장정일, "선진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전자무역 개선방안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보고서, 2009, 15면;

14) 김지환, "아마존의 신사업 성공 비결: 레버리지 전략", 「SERI 경영 노트」 제162호, 2012. 9. 6. 참조.

15) <http://sk.co.kr/mag/mag0004/contents/01specialreport/txt/sptxt03_20004.htm> (6월 17일 방문).

새로운 아이디어 및 콘텐츠를 통하여 많은 고객을 보다 빨리 확보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획득,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⁶⁾ 이비즈니스에서는 물리적인 생산용량이 아닌 지식과 기술, 정보수집 역량이 무엇보다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이비즈니스 환경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축으로 한 새로운 기술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이해하고, 온라인을 바탕으로 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좁은 개념인 전자상거래 또는 이커머스의 개념 자체에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¹⁷⁾ 본고에서 사용하는 이커머스의 경우는 쇼핑몰 개념과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전자상거래는 B2B와 B2C를 포함하고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를 모두 포괄한다.¹⁸⁾ 그리고 전자무역은 전자상거래의 특수한 형태로서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라고 볼 수 있다. 기존 무역거래는 해외시장 조사, 거래선 발굴, 거래제의, 상대방의 신용조사 및 계약의 체결, 그리고 그 이후의 목적물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모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무역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전자무역은 모든 무역절차가 인터넷환경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것이 세계 무역네트워크 구축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이트레이드가 실현되게 된다. 즉,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는 이비즈니스(e-business)라는 전체적인 경영전략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¹⁹⁾ 무역협회나 정부도 이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루 이루지는 국제 B2B, B2C 전자상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다품종 소량 판매로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무역거래 행태가 많아짐에 따라 이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국제 B2B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도 이비즈니스 환경을 바탕으로 한 대외무역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이다.

16) 양희천, “e-비즈니스의 발전방향과 성공전략”, 「NICE」 제18권 제3호, 2000, 279면.

17)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처리되는 거래라고 하는 견해, 전자문서교환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 재화나 용역 거래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로 처리되는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손영화, 「전자상거래법-이론과 실제」, 2013, 25면.

18) 채진익, 「전자무역론」, 2014, 45면. 그림 1-5.

19) 채진익, 상계서, 44면.

3.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의의 및 도입 배경

컴퓨터의 발달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무역 환경에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무역거래절차 각 부분에서 전자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과 개발이 이어지며 전자무역의 시대를 예고했다.

전자무역의 정의는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⁰⁾ 즉, 전자무역이란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와 문서, 절차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으로 변환된 문서는 취급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오류의 발견 및 처리가 빠르며 보관과 검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종이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경제성이 뛰어나며 종이사용량의 절감은 나무의 보존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라는 환경적 측면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 무역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자무역 활용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는 2009년 기준 총 5조 9,641억 원에 달하며, 종이사용 절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총 145만 그루의 조림효과가 발생하고, 총 5만 7천 톤의 CO2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²¹⁾ 이렇듯 전자화를 통한 무역거래의 효율성증대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각국과 국제기구 등은 무역거래절차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1970년대를 거치며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전자문서의 도입 및 표준화를 위해 UN의 주도하에 많은 논의가 일어났다. 이러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며 EDI(Electronic DataInterchange)의 개발 및 발전에 따라 무역의 절차를 EDI방식에 맞게 전자적으로 정형화하여 처리하는 무역절차 자동화로 이어졌다. 1990년대 초에 이러한 EDI방식이 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이를 활용한 전자무역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인터넷 환경을 통해 더욱 유연하고 호환성

2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1항.

21) 최용민·김우중 (2010), 무역절차의 그린화, 전자무역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무역 협회 TradeFocus, Vol.9No.64, pp.9-15.

높은 전자무역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생겨났다.²²⁾ 이렇게 전자무역 플랫폼을 구축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역거래가 서로 다른 국가 간에 벌어지는 거래행위이며, 그로 인해 수많은 절차와 각국의 관련 당사자들이 존재함에 따라 어느 한 부분만의 전자화를 통해서도 전자화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자무역의 발전 과정 속에서 무역결제 부문은 그 특성상 전자적 시스템의 도입이 가장 요구되면서도 발전 및 활용이 비교적 더딘 실정이다. 우선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시간적인 측면의 요구가 있다. 수세기를 이어온 전통적인 방식의 무역거래는 물품의 운송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의 운송 및 취급, 처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선박 및 항공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물품의 운송시간은 점차 단축되면서 결국에는 물품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한,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물품이 많아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서류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 은행이 신용장 처리에 소요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0일이다.²³⁾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도입은 이러한 시간적 측면의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시간을 일(日)단위가 아닌 시(時)단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비용적측면의 요구가 있다. 무역거래는 물품의 운송과 취급 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해당 거래와 관련된 서류 및 대금의 취급 에도 상당한 비용이 요구된다. 거래의 거래대금을 상이한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 간에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참여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모두 비용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도입은 서류의 취급이 전자화됨에 따라 종이의 소모를 줄여 종이의 사용과 운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거래절차를 단순화시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²⁴⁾

이렇게 시간적, 비용적 측면의 요구가 있음에도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활용이

22) 류건우 등 (2011), 『전자무역과 웹 비즈니스』, 계명대학교 출판부, p.358.

23) 배상목·전용식 (2009), 『E-COMMERCE, E-TRADE를 위한 전자결제론』, 이담, p.165

24) 김철호, “U-Trade 시대의 전자무역과 국제무역관습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5권 제2호, pp.87-88.

더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거래대금이 국가 간에 이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류들을 거래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의 전자화만을 가지고는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이 완전하게 구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역거래가 신용장을 통해 대금 결제를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를 따져보면, 전자신용장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신용장 업무 절차가 전자화를 이루었다고 해도 선하증권 등이 전자화되어있지 못하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를 위해 종이서류를 제시하게 된다. 결국, 무역거래의 결제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각 방식은 독립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다양한 무역절차 및 서류를 결제조건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절차 및 문서가 전자화 되지 않고서는 전자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이란 무역결제의 전 과정 및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취급하고 처리하며 대금의 결제 또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호환성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의 전자무역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4.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운영 원리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서버 및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각 사용자 간에 전자문서의 교환을 통해 운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교환은 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해당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업무 특성에 맞춰 필요한 기능이 빠짐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은 지금까지 EDI를 통해 널리 보급되었는데, EDI를 기반으로 하여 무역대금결제 전자화 시스템, 전자신용장, 전자선하증권이 각각의 특성과 기능에 맞도록 개량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운영 원리를 파악하고 향후 어떠한 운영 시스템이 도입될 것인가에 관한 연구의 출발은 EDI로 시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5) 김용재 (2008),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9 권 제5 호, pp92-93.

EDI란 해당 산업분야의 특성을 구조화된 데이터로 표현된 문서표준으로 작성하여 일방의 사용자가 보유한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사용자가 보유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²⁶⁾

EDI는 전통적 무역거래가 서류를 기반으로 하여 처리하던 무역절차를 컴퓨터를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의 등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무역절차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일 뿐 서류를 기반으로 한 무역절차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EDI는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해 EDI표준, EDI소프트웨어, 통신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축된 EDI시스템은 빠른 업무 처리를 통해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문서작성 및 처리, 전달에 소요 되는 거래비용의 절감 효과는 물론 비즈니스 환경의 전반적인 혁신을 가져와 기업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초기의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은 EDI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발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의 SWIFT 신용장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면, SWIFT 시스템은 EDI에 기반을 둔 폐쇄형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EDI서비스 제공업자의 전용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은행 전자자금이체 및 전자신용장 업무에 알맞게 개량된 EDI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문서를 주고받으며 전자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량은 EDI표준을 준수하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폐쇄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한정적이며 외부에서의 침입이 불가능하므로 높은 보안성을 특징으로 한다.

26) 안동규·박찬주 (2011), 『유비쿼터스 시대의 EDISystem』, Global, pp.10-11

<그림 2-5> EDI 폐쇄형 운영 시스템



자료 : 안동규·박찬주 (2011), 『유비쿼터스 시대의 EDISystem』, Global,

이렇게 EDI등에 의해 구축된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운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보안이다. EDI가 폐쇄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높은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시스템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한 안전성 및 보안성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것은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전통적으로 암호화 방식에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과 대칭형 암호화 방식이 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암호를 가진 암호키와 이를 해독할 수 있는 복호키 가운데 암호키를 공개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통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의 암호키를 이용해 메시지가 암호화되어 전송된다. 이렇게 암호화 되어 전송된 메시지는 복호키를 가진 사용자만이 해독하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암호키와 복호 키는 서로 다른 암호 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암호키를 아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복호키를 만들

수 없다. 이러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도 발전을 거쳐 결정적 공개키 방식에서 확률 공개키 암호 방식으로 변화하여 같은 메시지라도 암호화를 거칠 때마다 매번 다른 암호문을 통해 암호화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보안을 강화하게 된다.²⁷⁾

대칭형 암호화 방식은 암호키와 복호키가 같은 암호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대칭형 암호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 하는데, 대칭형과 비대칭형이 그것이다. 대칭형 암호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DES, SEED, AES 등이 있고 비대칭형 암호 방식에는 RSA, ECC 등이 있다. 대칭형은 말 그대로 암호키와 복호키가 같은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암호화 및 그것의 해석 속도가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비대칭형은 암호키와 복호키가 서로 다른 암호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키의 교환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보통은 데이터의 암호화에 대칭형 방식을 사용하고 데이터의 교환에는 비대칭형 방식을 사용한다.²⁸⁾ 결국,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버와 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서버와 사용자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통신망과 이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 및 메시지 시스템 및 암호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어느 하나 빠짐이 없이 모두 갖춰져야 할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기반 확립과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이나 사용자간의 약정에 의한 체제가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5.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변천 과정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변천 과정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단계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 2단계는 비표준 통신을 통한 결제 단계, 3단계는 EDI를 통한 결제 단계, 4단계는 인터넷을 통한 결제 단계, 5단계는 표준 호환 플랫폼을 통한 통합 결제 단계이다.²⁹⁾

1단계 오프라인 결제 단계는, 전화나 우편 등에 의해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활동이 이루어지고 은행 방문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다. 기존의 오프라인을 통한 결

27) 류희수 (2006), "공개키 암호의 안전성", 과학교육논총, 제19집, pp.193-196.

28) 정우열·이선근 (2007),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대칭형 혼합형 암호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제2권 제3호, p.166.

29) 김용재 (2010),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실무』, pp.219-220.

제 시스템이며, 1단계에서는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신 등을 통한 결제도 전자결제 시스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정보의 전송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보기 어렵다.

2단계 비표준 통신을 통한 결제단계는, 여전히 오프라인을 통한 거래가 주가 되지만 자체적으로 완성한 비표준 통신 및 시스템에 의해 주문/조달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은행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다. 주로 은행 간, 자회사와의 거래나 오랫동안 거래를 해 온 하청업체와의 거래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비표준 통신을 통한 결제를 위해서는 시스템 전용선의 구축은 물론 시스템을 제어하고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 시스템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주문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 된다.

3단계 EDI표준을 이용한 결제 단계는, 거래 당사자는 물론 은행 간에도 EDI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전자자금이체가 이루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주문/조달이 이루어진다. EDI시스템은 폐쇄형 네트워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유롭게 EDI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없다. EDI시스템 및 전용망을 구축한 뒤 EDI시스템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야 EDI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용 단말기와 전용망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지만, 보안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³⁰⁾

4단계 인터넷 및 웹 호환 범용 클라이언트를 통한 결제 단계는,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결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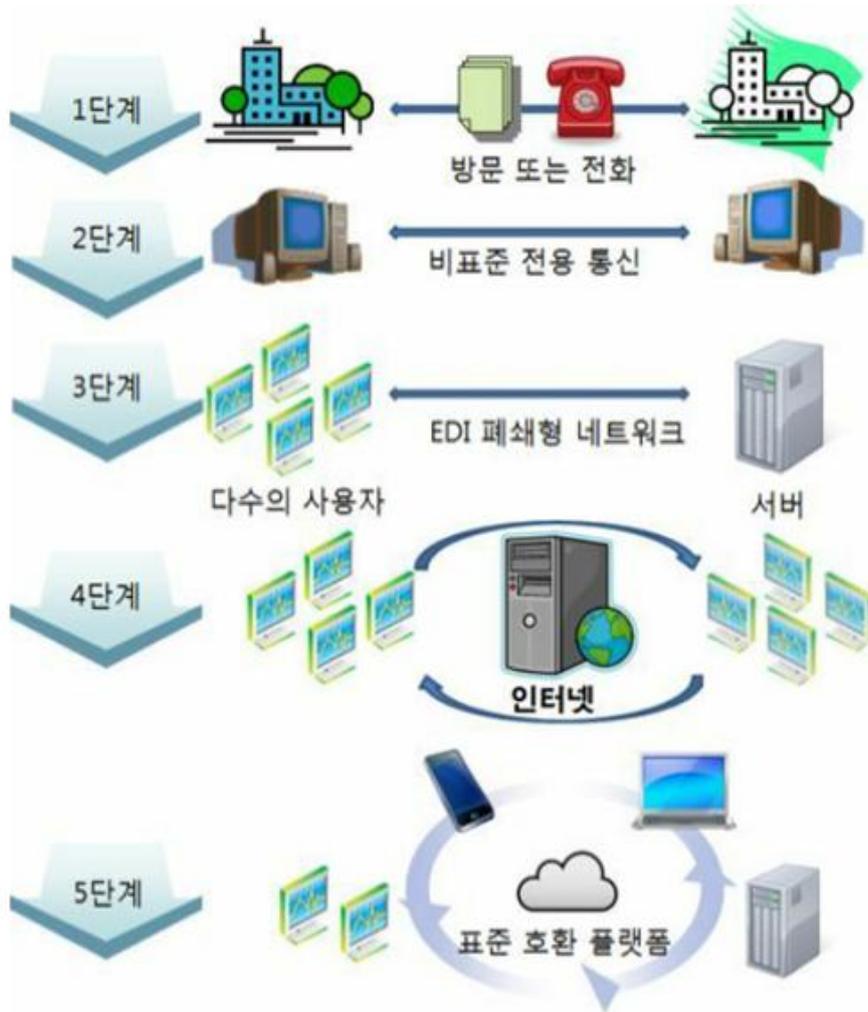
하지만 아직도 보안유지가 필요한 중요문건 등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지 않으며, 은행은 EDI네트워크의 심화로 EDI를 통한 전자자금이체를 유지하기 때문에 은행과 거래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정보의 전달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은행도 인터넷 호환 범용 클라이언트를 병행 사용하여 제한적인 정보의 제공이나 간단한 결제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지원하는 단계이다.

5단계 공개된 ebXML을 기반으로 한 통합결제 단계는, 개방형 네트워크 표준인

30) 김웅진, 박종삼, “전자신용장거래의 운용 메커니즘에 관한 소고”, 무역학회지, 제 22권 제4호, pp. 277 -279

ebXML의 발달 및 보안기술의 발달을 통해 네트워크에 오픈된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없이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시스템에 접근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은행은 EDI기반의 전자자금이체 시스템 에서 점차 벗어나 오픈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비로소 은행-거래당사자 간에도 자금이체와 관련한 업무가 개방되는 단계이다.³¹⁾

<그림 2-6>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변천과정



자료 : 김용재 (2010),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실무』 P.220

31) 조현숙 (2004), "전자무역에서 ebXML 활용을 위한 과제",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pp.253-255

제3절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특성 및 요건

1.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특성

전통적 방식의 무역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직접 만나거나, 대리인을 통해 결제대금을 주고받고, 또는 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궁극적으로 일방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상대방 혹은 은행 등 결제를 위해 누군가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무역대금의 결제를 위해 인적, 물적, 시간적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경우 거래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컴퓨터를 통해 시스템 상에 접근하여 대금의 결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대금결제 방식에 비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즉시성이다. 전자무역 결제 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거래대금이나 전자문서 등은 일방이 해당 대금 또는 문서의 전달을 시스템 상으로 명령하는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이를 전달받은 거래상대방은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³²⁾

이러한 즉시성은 전통적인 무역거래가 가지고 있던 시간적 측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날로 신속해지는 무역물품의 이동속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는 종결성을 들 수 있다.³³⁾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자 무역 결제시스템은 사용자가 한번 결제 혹은 문서의 전달을 승인하면 이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즉시성에 의해 처리된 거래가 바로 종결성을 가지는 것이다.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이 아닌 전통적인 무역거래의 경우에는 운송서류를 항공우편 등으로 전달할 때, 만약 송부한 운송서류에 오류가 있다면 즉시 특송우편이나 e-mail을 통해 이에 대해 통보를 하고 해당 서류를 교체하거나 수정할 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은 자신의 거래 승인행위가 곧바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해당 거래는 종결되므로 사용자는 이상 유무의 확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셋째로는 시스템 위협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은 네트워크

32) 이동철 (2002),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론』, MJ미디어, pp.70-76.

33) 구중순·허은숙 (2007), 『무역결제』, 박영사, pp.384-392.

시스템 상에서 구축되고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오류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은 물론,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네트워크 시스템은 자체적으로도 오류를 일으킬 수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2차, 3차의 오류방지 및 복구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네트워크 시스템은 해커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전통적인 거래 방식에 비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상의 거래는 그 즉시성으로 인해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에 의한 시스템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는 막대하며 추적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렇게 한번 시스템 위험을 드러낸 시스템은 사용자의 신뢰도를 떨어트려 사용자의 이탈을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시스템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보완이 필요하다.³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을 기존의 종이서류 기반의 무역 결제시스템과 비교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기존 무역 결제시스템과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비교

기존 무역 결제시스템	비교 항목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전화, FAX, 우편	의사소통	전화, e-mail, 인터넷
종이서류	서류의 형태	전자서류
방문, 우편	서류의 전달	전자전송
수 일 소요	서류 전달 기간	즉시
수 일 소요	서류 심사 기간	수 시간 소요
은행 방문	결제 방법	컴퓨터로 시스템 접속
신용장, 추심, 송금 등	결제 형태	전자신용장, 전자화 시스템
도난, 분실	위험성	시스템 보안, 해킹

자료 : 정분도 (2009), 『글로벌 전자무역실무』, 두남,p.23

2.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요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시스템 상에서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시스템은 사용자 간에 주고받는 데

34) 배상목·전용식 (2009),전계서, p.166.

이터가 실체가 없는 전자적 신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물 및 서면서류를 주고받는 기존의 오프라인 시스템과는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에는 독립성, 무결성, 호환성, 범용성 등이 있다.

1) 독립성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은 온전히 디지털 데이터만을 통해 보유자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상에서 물리적인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이를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³⁵⁾ 만약 시스템상에서 완벽하게 결제 및 자금의 이동이 구현되지 않고 오프라인상의 절차를 동반하게 된다면 이것은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은 사용자가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만 접속할 수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결제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독립성은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중요한 조건중 하나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결제시스템의 서명, 복사방지 기술 등이 시스템 상에서 디지털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무결성

무결성은 시스템 상에서 주고받는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나 시스템 상의 데이터가 완전한 시스템을 통해 어떠한 조작이나 변화도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느냐의 문제이다. 즉, 무결성은 송수신메시지가 전송 도중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자적으로 표현된 화폐는 실제 화폐보다 복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³⁶⁾

3) 호환성

전자대금결제 시스템이 아무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진 대금거래가 실제 화폐로 교환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또한, 전자대금결제가 여의치 않은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35) 윤영한, 『국제무역결제』, 우용출판사, p.148.

36) 박중수·채훈 (2011), 『무역실무론』, 삼영사, p.160

사용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거래 방식이나 절차와 호환성을 유지해야 한다. 37)

호환성은 접근성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접근이 용이한 시스템을 호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투자가 이어지면 이것은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의 절충이 필요한데, 다른 전자 시스템과의 호환성의 확보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진출하지 않았던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사용자의 증가가 나타날 경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 현상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로 인한 환상에 젖어 해당 국가의 서비스망이나 대리점 등을 마련할 경우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럴 때에는 해당 국가의 은행이나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협력업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다.

4) 범용성

무역거래는 상이한 국가 간에 위치한 거래당사자들이 벌이는 거래행위 이므로 전 세계적인 범용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³⁸⁾ 시스템의 구축단계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범용성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성을 취할 것인가이다. 만약 독립성을 취한 시스템이 시장에서 사용자들 에게 선택되어 크게 활성화될 경우,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의 이탈이 매우 적고 수익성이 높은 독보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누릴 가능성이 크다.

말 그대로 독점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애플사는 자신들의 하드웨어만 접근이 가능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앱 스토어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켰다. 경이로운 성장과 수익률은 이러한 독립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독립성을 취한 시스템으로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범용성을 높여 시스템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유연한 사용자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37) 정현수·이동일, "전자거래시스템 및 관련법 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4권 제5호, p.131.

38) 김철호, 전게서, p.96.

제4절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활용 현황

1.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결제방식 현황

1) 수출대금 결제 추이

수출대금 결제방식의 운영은 1997년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총수출의 43.2%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대금 결제에서 신용장에 의한 결제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송금결제방식 29.3%, 추심결제방식 24.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송금결제방식의 비중은 1997년 IMF를 기점으로 29.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60.2%로 약 2배로 확대 되었다. 따라서 신용장방식 15.6%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추심결제방식 또한 동 기간 중 24.9%에서 7.3%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년도 별 결제비중을 분석한 결과 수출입대금결제에서 단순송금에 의한 대금결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단순송금에 의한 방식이 각각 57.2%, 58.4%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단연 모든 결제방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제방식으로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결제방식의 선호는 기업들이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 등의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결제의 편리성 측면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출업자 측의 선택만이 아니고 해외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최근 은행의 신용악화로 소액거래의 경우 신용장발행을 주저하고 있다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본다. 수출업자 측에서는 대금 미회수 위험이 있고 수입자 측에서는 미리 결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자금부담의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래가 소액이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송금방식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도 수출액이 2000년도대비 4,000억불이 증가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로 대기업의 선박 수출이나 전기, 전자, 광학기계나 자동차 등 수송기기의 수출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순송금방식의 결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선박수출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과 본지사간

의 거래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대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는 단순송금방식의 결제라기보다는 본·지사 간 D/P거래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신용장거래는 1997년 대비 금액 적으로는 증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출대비 비율은 총 수출액이 증가됨으로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8> 우리나라 수출입 실적 규모

(단위 : 백만불)

구분 \ 년도	수출	수입
1997년	136,164	144,613
2000년	172,267	160,481
2009년	363,533	323,084
2013년	559,632	515,585
2015년	526,756	436,498
2017년	573,694	478,478
증감 1997년 대비	+437,530	+333,865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

<표 2-9> 수출결제방식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2006년	2016년
송금방식	56.0	67.1
추심(D/A, D/P)	9.8	9.4
신용장(L/C)	19.0	9.4
기타	15.2	14.1
계	100	100

자료 : www.kita.net

<표 2-10> 결제방식별 수출금액

(단위 : 백만불)

결제형태	1997년	2000년	2009년	2013년	2017년
A/S L/C	47,531	39,600	45,820	48,282	33,946
단순송금방식(T/T,M/T)	25,524	48,330	169,088	293,516	334,885
D/A	23,533	33,731	20,770	45,463	41,750
COD, CAD	14,441	25,605	48,490	68,539	60,430
Usance L/C	11,231	7,908	13,685	21,919	18,628
D/P	10,349	5,278	3,079	6,417	4,972
기타 무상	2,826	1,711	5,093	6,823	6,552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507	2,154	436	81	1,662
분할영수(지급)방식	153	41	1,088	360	189
기타 유상	69	2,455	27,331	36,070	27,949
임가공료지급방식 가공무역	-	5,455	28,653	32,162	42,733
총 수출	36,164	172,268	363,533	559,632	573,696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

2) 기업규모별 수출결제 현황

수출기업에 대한 규모별 수출대금 결제방식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연간 100만 달러 미만 기업과 1억 달러 이상 수출기업으로 구분 시 수출규모가 작은 기업일 수록 송금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2>에 따르면 2009년 중 1백만 달러 미 만 수출기업의 송금 비중은 76.8%로 1억 달러 이상 수출업체의 송금 비중 58.0%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반면에 신용장 거래 비중은 1백만 달러 이하 수출업체가 11.8%로 1억불 이상 수출업체의 송금비중 16.3%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2년간 수출대금결제의 추이를 분석하면 수출규모가 작은 기업일 수록 송금방식 선호도가 더 높아져 1백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의 신용장 비율은 44.4%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송금비중은 1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이 50.7%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표 2-11> 결제방식별 수출비중

(단위 : %)

년도	단순 송금	동시 송금	D/A	D/P	위탁(수 탁)가공 무역	Usance L/C	A/S L/C	기타 유상	기타 무상
1997년	18.7	10.6	17.3	7.6	-	8.2	34.9	0.1	2.1
1998년	26.0	11.2	15.1	5.3	1.9	5.7	33.2	-	1.4
1999년	27.4	13.4	19.4	4.4	3.1	4.8	26.3	-	1.0
2000년	28.1	14.9	19.6	3.1	3.2	4.6	23.0	1.4	1.0
2001년	31.8	12.8	16	2.9	3.2	4.6	22.2	3.5	1.3
2002년	32.6	15.3	14.5	2.6	3.5	4.1	20.0	4.8	1.3
2003년	34.1	16.1	12.4	2.7	3.7	4.3	18.6	6.5	1.4
2004년	35.2	17.5	10.8	2.0	3.6	4.1	17.4	7.7	1.6
2005년	37.6	16.6	9.5	1.8	4.3	4.0	16.0	7.5	2.7
2006년	40.3	15.7	8.3	1.5	5.1	4.4	14.6	8.0	1.8
2007년	42.2	15.1	6.9	1.3	6.1	4.3	14.2	7.9	1.3
2008년	44.5	13.9	5.8	1.1	6.6	5.1	13.7	7.2	1.5
2009년	46.5	13.3	5.7	0.8	7.9	3.8	12.6	7.5	1.4
2010년	46.9	13.3	6.3	1.0	7.6	3.7	11.9	7.5	1.3
2011년	49.7	12.7	6.8	1.4	6.6	3.9	11.1	6.2	1.2
2012년	50.0	13.6	8.1	1.3	6.0	4.0	9.7	6.0	1.2
2013년	60.5	10.1	1.9	0.7	2.5	13.1	7.0	3.5	0.1
2014년	54.3	10.2	8.3	1.1	6.4	3.9	8.3	6.2	1.1
2015년	55.5	10.1	8.5	1.1	7.2	3.0	7.1	5.9	1.3
2016년	57.2	9.9	8.4	1.0	7.0	3.1	6.3	5.5	1.3
2017년	58.4	10.5	7.3	0.9	7.4	3.2	5.9	4.9	1.1

자료 : 대한무역협회 (KITA)

한편 2009년까지의 결제방식을 2017년 결제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2009년 결제 비중의 증가를 기록한 것은 송금결제 방식만이 증가세를 보이고 나머지 결제방식은 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1억 달러 이상에서 송금 방식이 2.3%증가를 보이고 1천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미만에서 5.8%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신용장 방식이 가장 많이 줄어든 기업규모를 살펴보면 1천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미만과, 1백만 달러 미만 기업이 가장 2.7% 감소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1억 달러 이상에서 추심에 의한 결제가 2.7%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규모에서는 추심에 의한 결제 방식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대기업의 거래에서는 추심거래의 증가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1백만 달러미만의 중소기업의 수출의 경우 송금비중이 크게 상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수출대금 회수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으나 그만큼 대금회수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수입자의 경우에는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자금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송금방식의 거래는 수출업자의 경우는 자금부담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수입자의 경우에는 신용장개설 수수료 보다는 일반자금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 상당한 자금부담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2-12>에 따르면 1억 달러 이상에서도 송금방식이 60.3%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로 대기업거래로 생각되며 대기업거래의 경우에도 본·지사 간 거래는 단순송금방식이 아니고 D/P방식이나 Open Account방식으로 분류 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 1억 달러의 경우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1,000억 원 이상을 송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표 2-12> 기업규모별 수출입 결제방식 비중 추이

(단위 : %)

업체규모	결제방식	1997 (a)	2009 (b,c)	변화 (b-a)	2011 (d)	변화 (c-d)
1억 달러 이상	L/C	37.1	16.3	-20.8	15.1	-1.2
	송금	32.6	58.0	25.4	60.3	2.3
	추심	29.0	6.8	-22.2	8.9	2.7
1천만 달러 이상 ~ 1억 달러 미만	L/C	54.3	18.1	-36.2	15.4	-2.7
	송금	19.0	63.4	44.4	69.2	5.8
1백만 달러 이상 ~ 1천만 달러 미만	추심	21.7	7.2	-14.5	5.3	-2
	L/C	60.1	15.5	-44.6	13.4	-2.1
1백만 달러 미만	송금	21.9	72.6	50.7	76.7	4.1
	추심	12.8	4.1	-8.7	3.1	-1
1백만 달러 미만	L/C	56.2	11.8	-44.4	9.1	-2.7
	송금	30.3	76.8	46.5	80.5	3.7
	추심	8.3	2.3	-6.0	1.8	-0.5

자료 : 대한무역협회 (KITA)

3) 지역별 수출결제 현황

지역별 결제방식의 주요 특징은 대 선진국 결제방식의 경우 신용장방식 비중이 낮은 반면 대 개도국 결제방식은 신용장 방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1997년 중 선진지역으로 대표되는 북미, 유럽의 신용장 결제방식의 비중은 해당 지역 전체 수출에서 각각 38.4%, 28.6%에 불과하여 결제방식 변화에 따른 위험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 중동지역 신용장 방식의 비중은 78.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대 중국과 대아세안 신용장방식의 비중은 각각 49.0%, 45.1%로 대 선진국에 비해서 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대양주 지역과 일본지역은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중남미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신용장방식의 비중은 개도국 중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특정 결제방식으로 수출되는 일부 품목의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고 있다. 즉, 대양주 지역은 대부분 신용장방식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지역은 대부분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수출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3>에서 2015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결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대 선진국 수출시 송금거래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홍콩 88.9%, 일본 80.3%, 싱가포르 82.2%, 독일 69.2%, 대만 68.2% 5개국은 수출시 송금거래 비중 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54.5%)은 타선진국에 비해 송금방식 비중이 낮은 편이나 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비중이 높은 추심방식이 31.2%를 차지하였고 대만 20.5%, 인도 31.8% 등 개도국 수출 시 안전한 신용장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 독일,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의 경우에는 오랜 고객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거래처가 많으므로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대부분이 무역거래의 증가로 해외지사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부거래로 인한 D/P거래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본다.

<표 2-13> 2015년 주요 수출대상국 결제방식 비중 현황

(단위 : %)

구분	홍콩	독일	일본	싱가폴	대만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사후/동시송금	33.1	12.2	13.0	6.0	20.4	10.6	15.9	20.4	6.7
단순송금	55.8	57.0	67.3	76.2	47.8	43.9	39	46.7	39.9
D/A	1.4	12.3	3.2	0.5	1.3	30.8	4.4	4.7	8.5
D/P	0.1	0.2	1.4	0.3	0.2	0.4	1.4	0.7	9.8
기타무상	0.6	2.3	3.9	1.5	1.5	1.8	0.6	0.7	0.6
가타유상	0.6	13.2	2.3	0.3	1.0	7.6	8.7	0.3	2.0
분할영수(지급)방식	0.1	-	-	-	-	-	-	-	-
A/S L/C	4.1	1.8	6.0	2.6	16.9	3.2	7.5	10.0	13.6
Usance L/C	2.6	0.8	1.4	3.1	3.6	1.2	7.0	3.1	18.3
가공무역	1.6	0.2	1.5	9.7	7.3	0.5	15.5	13.5	0.4
총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대한무역협회 (KITA)

<표 2-14> 주요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년도 국가	1997년	2000년	2009년	2013년	2015년	2017년
중국	13,572	18,454	86,703	145,869	137,123	142,120
미국	21,624	37,610	37,649	62,052	69,832	68,609
일본	14,771	20,466	21,770	34,662	25,576	26,816
홍콩	11,725	10,708	19,661	27,756	30,418	39,112
싱가포르	5,796	5,648	13,616	22,289	15,011	11,651
베트남	1,603	1,688	7,149	21,087	27,770	47,753
대만	4,612	8,026	9,501	15,699	12,004	14,898
인도네시아	3,540	3,504	5,999	11,568	7,872	8,403
인도	1,150	1,326	8,013	11,375	12,029	15,055
러시아연방	1,767	788	4,194	11,149	4,685	6,906
브라질	1,710	1,724	5,311	9,688	5,494	5,505
기타	81,871	109,942	219,566	373,194	178,942	186,866
총 수출액	136,164	172,267	363,533	559,632	526,756	573,694

자료 : 자료 : 대한무역협회 (KITA)

이상의 <표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등 8개국이 아시아권에 있으며 이들 무역의 합이 전체 수출의 51%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랜 무역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거래처나 해외지사를 통한 내부거래가 대부분이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신용장거래 보다는 사후송금방식이나 D/P거래가 대부분이라고 평가된다.

4) 품목별 결제방식 현황

결제방식을 품목별로 산출한 결과 발견된 주요특징은 제품별로 신용장비중이 높은 품목과 낮은 품목으로 뚜렷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표 2-15>에 의하면 섬유류는 수출품목 중 신용장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수산물, 화학제품 및 철강금속도 신용장방식이 11.4%~43.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품목은 제품특성상 여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단위가 크고 물품인도 또한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용장방식에 대한 선호경향이 높는데 기인하고 있다. 반면 산업용전자, 반도체, 기계류 등은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0.7~15.4%로 여타 품목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품목들의 주요 수출시장이 국가신용도가 높고 거래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 EU 등 선진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 현지지사나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이 기존의 대량 주문에서 소량 주문으로 주문 패턴이 바뀜에 따라 송금방식에 대한 선호경향이 높아졌다.

자동차와 비금속광물제품(경유, 휘발유등 유류제품이 주종을 이룸)은 현지비축 판매거래(stocksale) 형태의 본지사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D/A방식 비중이 각각 36%, 26%로 여타 품목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선박은 거래특성상 주로 선수금을 일정 부분 받고 건조단계에 따라서 분할 지급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송금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수출의 경우에는 해외 대형은행의 지급보증을 받고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거래로서 순수한 송금 거래와 구분해야 할 것이다.

< 표 2-15 > 품목별 수출결제방식 변화

(단위 : 비중)

품 목	주요 결제방식 구성비 변화			신용장비중 2015년
	감소	증가항목 비교 97년 <-> 2000년		
농수산물	L/C 12.4%p 하락	송금 11.5%p 상승	53.7%p 하락	11.4%
화학제품	L/C 11.0%p 하락	송금 18.0%p 상승	47.5%p 하락	43.9%
비금속광물제품	추심 20.0%p 하락	송금 29.2%p 상승	21.3%p 상승	21.3%
섬 유	L/C 12.6%p 하락	송금 7.9%p 상승	60.4%p 상승	17.7%
철강금속	L/C 6.6%p 하락	송금 7.5%p 상승	52.4%p 상승	33.4%
전기전자	L/C 24.1%p 하락	송금 20.5%p 상승	11.6%p 상승	11.6%
반도체	L/C 36.8%p 하락	송금 24.7%p 상승	4.2%p 상승	0.7%
기계류	L/C 4.6%p 하락	송금 7.8%p 상승	26.3%p 상승	15.4%
자동차	D/P 10.5%p 하락	D/A 36%p 상승	41.5%p 상승	41.4%

자료 : 대한무역협회 (KITA), 무역통계 Data Base를 이용하여 산출

한편 1997년 이후 지난 4년간 결제방식의 변화를 보면 반도체등 전기전자는 신용 장 방식의 비중이 36.8%p나 감소하고 송금방식의 비중이 24.7%p 증가하여 수출결제방식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이들 품목들은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간의 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들어 주문방식이 소량으로 빈번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를 시발점으로 국내 전자메이커들은 외환위기 이후 사후송금방식의 하나인 Open Account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송금방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철강금속, 섬유류, 자동차 등은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5~12% 감소하고 송금 방식이 8%내외 증가하여 소폭 변화에 그치고 있다. 이들 품목들은 전기전자제품과 달리 수출 일회 당 대량으로 주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금회수의 리스크가 크고 신용장방식을 지속하더라도 부대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는 대량으로 물품이 인도되지만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 지사 간 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D/A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중 전기전자는 신용장방식이 12%로 크게 낮아졌으며 특히 반도체는 0.4%에 불과하여 모든 품목 중 신용장방식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섬유류는 신용장방식 비중이 60.4%로 모든 품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수산물과 철강금속도 50%를 상회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섬유류도 신용장거래가 17.7%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농수산물은 11.4% 철강금속도 33.4%로 하락하고 있다.

<표 2-16> 주요 수출 품목 결제 현황

(단위 : 백만불)

년도 분류	1997년	2000년	2009년	2013년	2015년	2017년
전기제품	34,047	46,366	88,787	135,497	138,349	163,061
기계, 컴퓨터	14,553	29,732	38,205	59,818	62,125	69,310
자동차	12,328	15,265	36,531	72,771	69,024	61,919
석유, 석탄	5,349	9,376	23,786	54,112	33,124	36,401
광학기기	1,951	1,895	29,252	35,943	32,520	29,007
선박	6,519	8,229	42,483	35,869	38,420	40,989
플라스틱	5,637	7,280	18,356	31,172	28,216	31,481
유기화합품	6,032	4,970	13,096	24,864	18,240	22,692
철강	4,937	5,945	15,464	22,269	20,153	22,330
철강의제품	2,595	2,467	8,022	11,179	11,167	13,080
계(a)	93,984	131,525	313,982	483,493	451,338	490,270
총 수출액(b)	136,164	172,268	363,533	559,632	526,757	573,694
a/b	68%	76%	86%	86%	86%	85%

주 : () 총 수출액에 대한 구입비

자료 : 대한무역협회 (KITA)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표 2-1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기, 전자제품과 기계, 컴퓨터제품 그리고 광학기기 기타 자동차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전기전자 제품과 기계, 컴퓨터 제품 및 광학기기가 1997년 대비 1,600만 불 이상 증가하고 있고 선박수출이 300만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제품이 주로 송금방식의 결제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중 선박수출의 경우에는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으로 기성고에 따라서 송금되는 것으로서 일반 단순 송금방식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기전자, 컴퓨터 제품도 현지지사와의 거래가 대부분으로 주로 대기업의 수출제품 이므로 선적서류가 송부되기 전 단순송금 방식으로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는 Open Account 방식으로 사후정산결제 방식이므로 송금방식으로 분류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본 지사 간 거래의 경우에도 선적서류를 받은 후에 송금되는 방식은 사후송금방식 보다는 D/P, D/A 방식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우리나라 수입 결제방식의 현황

1) 결제방식별 수입 비중

수입결제방식은 수출에 비해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출은 상품구조가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 등 완성재 중심의 자본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수입은 원유, 철광석 등 원자재와 전자부품 등 중간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교역대상국도 수입은 개도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장방식 결제비중은 1997년 중 76.1%에서 2000년 들어 54.6%로 크게 하락한데 반해 송금방식은 10.4%에서 28.1%로 크게 증가하였고 추심방식은 소폭의 증가를 보이다가 2000년 들어 1997년에 비해 다소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신용장방식이 여전히 주요 결제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하락하고 송금방식의 결제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2-17> 결제방식별 수입 비중 추이

(단위 : 백만불, %)

기준 결제	1997년	2000년	2008년	2013년	2017년
A/S L/C	60,190(41.6)	38,526(24.0)	51,567(11.8)	36,597(7.1)	28,682(6.0)
Usance L/C	49,833(34.5)	48,573(30.3)	66,549(15.3)	67,920(13.2)	46,927(9.8)
D/P	5,167(3.6)	5,171(3.2)	5,942(1.4)	3,674(0.7)	1,877(0.4)
D/A	6,018(4.2)	11,126(6.9)	9,050(2.1)	9,835(1.9)	11,280(2.4)
사전송금	14,019(9.7)	38,224(23.8)	225,517(51.8)	312,218(60.6)	309,720(64.7)
사후송금	953(0.7)	7,543(4.7)	50,273(11.5)	52,426(10.2)	38,962(8.1)
기타	8,436(5.7)	11,311(7.1)	26,377(6.1)	32,916(6.3)	41,030(8.6)
총 수입	144,616(100)	160,474(100)	435,275(100)	515,586(100)	478,478(100)

주 : () 은 총수입에 대한 구성비

자료 : 대한무역협회 (KITA)

<표 2-17>에서 보면 신용장거래 방식은 2017년도 신용장방식 결제가 75,600백만 불로서 1997년도와 비교했을 경우 금액 및 비중이 현저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약 16%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송금방식이 약 300,000백만 불 증가되었고 사후송금방식과 합하면 약 350,000백만 불이 증가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수입증가액과 거의 같은 금액으로 표시된다. 이는 대기업거래인 선박이나 전기, 전자제품, 반도체, 컴퓨터 등의 본지사간 수입거래를 전부 단순 송금방식이나 사후송금방식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2) 지역별 결제방식 변화

지역별 수입결제방식의 주요특징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의 결제방식은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낮는데 반해 개도국과의 결제방식은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높아 수출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18>는 지역별 수입결제방식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8> 지역별 수입결제방식 변화

지역	신용장방식 이용비중		수입결제방식 구성변화	
	2004년	2015년	감소항목	증가항목
북미	33.0%	23.6%	신용장 9.4%p 하락 추심 2.4%p 하락	송금 18.4%p 상승
아시아	33.6%	21.1%	신용장 12.5%p 하락 추심 2.6%p 하락	송금 11.8%p 상승
유럽	38.7%	23.1%	신용장 15.6%p 하락 추심 3.3%p 하락	송금 18.5%p 상승
중남미	50.9%	53.3%	추심 3.5%p 하락	송금 0.2%p 상승 신용장 2.4%p 상승
중동	46.7%	9.6%	신용장 38.1%p 하락	송금 38.0%p 상승 추심 0.2%p 상승
대양주	45.9%	30.8%	신용장 15.1%p 하락 추심 17.4%p 하락	송금 32.5%p 상승
아프리카	38.5%	16.0%	신용장 22.5%p 하락 추심 1.2%p 하락	송금 23%p 상승

주 : 결제방식 구성비는 지역별 전체수입에 대한 비중임

자료 : 대한무역협회 (KITA), 무역통계 Data Base를 이용하여 산출

<표 2-1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별 수입대금결제에서는 송금결제방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추심과 신용장결제방식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중남미지역의 경우는 신용장결제방식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동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추심결제방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북미 33.0% 유럽 38.7% 등 선진국지역과의 결제방식은 전체 수입금액의 30% 중반 내외로 나타난 반면 중동은 46.7%, 중남미 50.9%, 아프리카 38.5%, 대양주 45.9%를 보이고 있다. 개도국지역과의 거래 시 신용장방식 이용률은 40~50% 내외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선진국지역인 대양주의 경우 신용장 이용비중이 45.9%로 다른 선진국지역보다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들 지역에서 주로 수입하는 물품들이 거래단위가 큰 철강금속, 광물성 원료가 대부분으로 물품의 특성상 신용장결제방식 이용률이 높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양주의 물품특성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역별 수입결제방식은 개도국은 신용장결제 방식 이용률이 높고 선진국지역은 그 이용률이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이후 10년간의 결제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북미는 신용장과 추심이 각각 9.4%와 2.4% 하락하고 송금은 18.4% 상승하였다. 유럽은 신용장 15.6%, 추심 3.3%가 하락하고 송금방식은 북미와 비슷한 수준인 18.5% 상승하였다. 즉 유럽지역 등 선진국지역은 신용장방식 이용률이 10%p 초중반 추심방식은 2~3%p대 수준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송금결제방식의 이용률은 18%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동은 신용장이 38.1% 하락하고 송금 38.0% 상승, 추심이 0.2% 상승하였으며, 중남미는 추심방식이 3.5% 하락하고 송금 0.2%, 신용장이 2.4% 상승하였으며, 아프리카는 신용장이 22.5%, 추심이 1.2% 하락하고 송금은 23% 상승하였다. 개도국지역은 중남미를 제외하고는 신용장감소율이 20~30%p 내외의 수준에서 감소하여 송금방식으로 결제방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표 2-19> 주요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년도 국가	1997년	2000년	2009년	2013년	2015년	2017년
중국	10,116	12,798	54,246	83,052	90,250	97,860
미국	30,122	29,241	29,039	41,511	44,024	50,749
일본	27,907	31,827	49,427	60,029	45,854	55,125
홍콩	903	1,260	1,487	1,929	1,439	1,879
싱가포르	2,416	3,722	7,871	10,369	7,942	8,905
베트남	238	322	2,369	7,175	9,805	16,177
대만	2,421	4,700	9,051	14,632	16,654	18,073
인도네시아	4,107	5,286	9,264	13,189	8,850	9,571
인도	939	4,877	4,141	6,180	4,241	4,948
러시아연방	1,534	2,058	5,788	11,495	11,308	12,040
브라질	1,238	935	3,743	5,573	4,059	3,702
기타	62,675	63,455	146,661	260,451	192,073	199,449
총 수입액	144,616	160,481	323,087	515,585	436,499	478,478

자료 : 대한무역협회(KITA)

우리나라 주요 10대 수입국의 수입동향을 보면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권으로서 총 수입금액의 40%이상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는 오랜 거래처관계가 있거나 본 지사 간 거래로서 단순송금 방식 보다는 D/P, D/A 방식 또는 Open Account 방식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기사 논문에서는 단순 송금 방식 거래로 분류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본·지사 간 거래에서는 서류도 받기 전에 송금하는 사전송금 방식의 거래가 필요 없으며 서류 수령 후 사후에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3) 품목별 결제방식 변화

수입결제방식을 품목별로 분석하면 반도체 등 신용장방식 비중이 낮은 품목과 원유 등 신용장방식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수출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10년도에 원유는 신용장방식 비중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철강제품과 농수산물도 신용장방식 비중이 약 63.9%~67.2%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들 품목은 제품특성상 거래단위가 크고 거래빈도가 적어 신용장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산업용전자, 반도체 등은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가 많고 해외수출상과의 직 거래의 경우에도 소량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 2-20> 품목별 수입결제방식 변화

품 목	주요결제방식 구성비 변화 1997년 대비 2000년 %p 대비		신용장방식 비중(2010년)
	감소항목	증가항목	
농수산물	L/C 14.2%p 하락	송금 13.7%p 상승	63.9%
원 유	L/C내 크게 변화(전체적으로 7.8%p 하락) A/S L/C 44.7% 하락, Usance L/C 37.9%p 상승		81.8%
화학제품	L/C 16.2%p 하락	송금 15.0%p 상승	32.0%
철강금속	L/C 12.6%p 하락	송금 10.5%p 상승	67.2%
기계류	L/C 30.4%p 하락	송금 22.5%p 상승	33.2%
일반기계	L/C 27.9%p 하락	송금 18.6%p 상승	44.7%
전기전자	L/C 25.6%p 하락	송금 27.1%p 상승	28.7%
산업용전자	L/C 29.5%p 하락	송금 32.9%p 상승	23.9%
반도체	L/C 21.2%p 하락	송금 27.8%p 상승	10.2%

주 : 결제방식 구성비는 품목별 전체수입에 대한 비중임

자료 : 대한무역협회 (KITA), 무역통계 Data Base를 이용하여 산출

한편 1997년 이후 최근 4년간 결제방식의 변화를 보면 반도체등 전기전자가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25.6%p 하락하고 송금방식의 비중이 27.1%p 증가하여 수입결제 방식이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바뀌는데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 품목 들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수출상과의 직거래에서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로 전환이 크게 이루어졌으며 주문방식 또한 소량으로 빈번히 주문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은행에 대한 부대비용, 서류처리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 및 거래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전메이커를 중심으로 국내 전자메이커들이 송금방식의 하나인 Open Account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신용장방식이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원유, 철강금속, 농수산물 등은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의 변화가 15%p 내외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이들 품목들은 전기전자와 달리 개도국과의 비중이 높는데다 한 회당 대량으로 주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금회수의 리스크가 크고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전환되더라도 부대비용의 절감을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0년 중 전기전자와 기계류의 신용장방식 결제비중은 20~30%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원유, 철강금속, 농수산물 등은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60~80%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13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신용장방식 수입비중이 전체수입액의 약 20%에 달하고 있고 송금방식이 전체 수입액의 70%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수입증가액이 주로 원유, 석탄, 광석, 전기, 전자, 컴퓨터 물품이므로 이는 신용장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지 법인설립에 의하여 본지사간 거래로 분류될 경우에는 이를 단순송금방식보다는 D/P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본다. 단순송금방식과 D/P방식의 차이점은 단순송금방식은 서류의 수령 전에 송금하는 방식이고 D/P방식은 서류를 수령한 후 송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후송금방식과 D/P방식은 그 구별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하겠다. 사후송금방식은 선적통지나 사본서류 수령 후 송금하는 방식이고 D/P 방식은 원본 서류 수령 후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표 2-21> 우리나라 주요 수입품목 변화

(단위 : 백만불, %)

종류 \ 년도	1997년	2000년	2009년	2013년	2015년	2017년
전기제품	24,322	35,511	53,542	72,273	77,762	82,864
기계, 컴퓨터	20,288	20,873	34,407	47,449	46,455	60,545
자동차	1,925	1,631	5,516	10,484	15,018	15,720
석유, 석탄	27,381	38,077	91,669	180,432	103,402	109,954
광학기기	5,885	6,760	10,485	17,235	18,130	21,659
플라스틱	2,453	2,712	7,158	10,615	9,951	11,105
유기화학품	5,043	4,970	9,016	14,381	12,030	12,752
철강	6,233	5,990	18,442	20,369	15,404	16,544
철강의 제품	1,307	1,240	6,109	8,815	8,006	6,364
광석	1,744	2,096	8,814	16,618	12,010	14,208
무기화학품	1,482	1,443	3,743	5,919	5,778	7,204
구리	1,920	1,717	4,463	6,243	5,480	5,680
화학공업품	1,966	2,043	5,339	7,116	6,494	7,481
알루미늄	2,086	2,132	3,439	5,919	5,992	6,462
계(a)	104,035	127,195	262,142	423,818	341,912	378,542
총 수입액(b)	144,616	160,481	323,084	515,585	436,499	478,478
a/b	71%	79%	81%	82%	78%	79%

자료 : 대한무역협회 (KITA),

<표 2-21> 우리나라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석탄, 전기·전자제품 및 기계, 컴퓨터 부품, 광학기기, 광석 등 중화학원료가 대부분인데 이중 전기제품이나 기계, 컴퓨터를 제외하고 모두 금액이 크고 대량화물 이므로 현지구매 법인이나 고정 거래처를 통한 D/A, D/P 거래이거나 신용장거래가 많은데 모두 단순송금방식으로 분류 하였으므로 전체 수입액 대비 신용장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제5절 선행연구

국제무역대금의 전자적 결제를 위해 국가 간 모든 무역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글로벌 연계방안, 전자문서의 상호인정을 위한 전자서명 상호인증 모델에 대한 방안, 선하증권의 전자화 및 유통에 관한 방안, 전자 신용장 도입 및 활용에 관한 방안 등 전 세계를 하나의 무역 Network으로 연결하여 국가 간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자무역결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의 구축뿐만 아니라 신용장 및 선하증권의 전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선행 연구 검토에서는 무역결제의 전자화와 관련한 문헌적 선행 연구와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실증연구를 함께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자결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전자결제의 분야 중 하나의 분야에 집중해 연구를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무역을 포함한 모든 산업지도를 변화 시키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무역환경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점점 스마트 변화를 거치고 있다. 기존의 전자무역의 결제방식인 BOLERO와 SWIFT 등의 결제방식은 B2B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개방화, 정보화 등으로 B2C형태의 개인거래의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은 점점 B2C를 넘어 B2B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지급결제서비스 활용에 대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금융기관을 활용한 지급결제는 국제지급결제 제도로서의 역할,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의 상이성, 지급결제의보안성확보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무역결제방식 개발, 금융기관 지급결제 관련 규율의 정비, 지급결제 시스템의 보안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1. 전자결제 관련 선행연구

이재홍(2002)³⁹⁾은 연구에서 B2B간 무역거래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의 기반은 아직까지 취약한 실정이며 새롭게 제시되는 TradeCard System이 안정성과 신뢰성 및 전 통적인 무역관행과의 조화를 이뤄 부대비용 발생 등 경제성 면에서는 여타 결제수단보다 비교 우위적인 입장에 있지만, 매매당사자간의 기본적인 관심인 계약과 일치되는 물품인도와 이에 따른 대금지급의 확실성 보장여부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며 TradeCard System을 적용하는 관계당사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어야 참가하게 되는 문제점과 참여은행들은 수수료 없이 이자만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을 제시하였다.

이승영 외(2003)⁴⁰⁾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의 창출이며,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 대금결제에 관련된 부분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에스스로 결제는 여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무역거래 보다 고비용적 요소를 제거하여 저비용 거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환(2012)⁴¹⁾은 SWIFT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간 거래내역을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국제무역결제 또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전자무역의 실현방안으로 SWIFT의 TSU가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유순덕 외(2011)⁴²⁾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무역의 당사자인 기업들에게 절대적인 명제는 비용과 시간의 절약으로, 국제무역 거래를 신용공여(대출)와 연계, 기업의 손쉬운 대출과 이를 통하여 시간과 관련 비용을 절약 하는 방안으로 신용공여 연동 전자결제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김형철 외(2016)⁴³⁾는 연구에서 에스스로 방식을 수출입기업의 리스크 감소에 적합한 결제방식으로 제시하였다. 대금결제의 변화요인을 정보통신 및 기술의 발달

39) 이재홍, “글로벌 B2B 무역거래의 Escrow 결제에 관한 접근”, 창업정보학회지, 제5권 제2호, 창업정보학회, 2002, pp.193-215.

40) 이승영·이재홍, “에스스로 결제방법을 이용한 무역결제 규칙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이비즈니스학회, 2013, pp.191-218.

41) 김태환, “전자결제 인프라 현황과 향후 전망”,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p.585-610.

42) 유순덕·이민수, “신용기반의 해외무역 거래를 위한 최적화된 전자결제 시스템.”, 정보과학회논문지, 제38권 제6호, 한국정보과학회, 2011, pp.381-394.

43) 김형철, 송진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에스스로 결제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31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6, pp.285-301.

에 인한 신속한 거래의 진행과 이에 맞춰 운송 또한 이전 방식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대금결제의 진행과정이 빨라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리스크 감소의 방법으로 에스크로 결제방식을 제시하였다.

2. 무역결제관련 선행연구

박종석·이길남(2014)⁴⁴⁾은 최근 10년간 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형태별 분석결과, 송금결제, 신용장과 추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가와 지역 및 경제 발전단계는 결제방식의 추세와 사용상 비중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제방식마다 사용환경과 동기, 장단점 등을 구분해 매매관련 당사자는 거래환경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용조사와 수출보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강동윤·최광호(2014)⁴⁵⁾는 중소기업의 무역보험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위험관리의 기업적 측면의 정의를 내림으로서 신용위험관리의 방법을 당사자인 기업의 역할을 도출하였으며, 수출보험의 방법론과 무역환경 변화 및 결제방식의 변화는 결국 중소기업의 신용위험관리와 무역대금결제관련 사고율의 증가로 귀결되는 결과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정재우 외(2015)⁴⁶⁾는 기존 무역결제방식에 비추어 매매당사자인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의 관행을 해석 했다. 국내 정보통신의 발달과 온라인거래와 같은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사용자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참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기존결제 방식과 다른 전자방식 결제시스템의 활용이 사용자 편의성에 맞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원길(2014)⁴⁷⁾은 오랜 관행과 같은 신용장거래는 신용위험에 대한 대비와 구매대금 지급의 보장기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이지만 실무상 절차의 복잡성과 서류준비 등의 번거로움 등의 존재로 인해 대금결제과정의 시간적 비

44) 박종석·이길남,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9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 pp.145~167.

45) 강동윤·최광호, “중소수출기업의 신용위험관리:무역보험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제15권 제2호, 2014, pp111~130.

46) 정재우·이길남, “글로벌 시대 한국의 무역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점과 제언”, 무역학회지, 제40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5, pp.167-202.

47) 조원길(2014), “거래비용 측면에서 전자신용장 활용 전략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6권 제1호 pp247-269.

용적 측면이 문제점으로 제시됨에 따라 무역거래 절차상 지연 문제 등 거래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함이 개선책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진 외(2015)⁴⁸⁾의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기존 거래비용의 감축이 가능한 전자적인 결제방식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역거래대금 결제방식은 오직 기업 단독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기업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무역결제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 은행의 관점에서 무역대금결제방식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실제 은행 현장에서 외환업무 및 수출입업무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은행이 어떠한 관점에서 대금결제를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및 제주도의 은행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신용장 결제방식의 사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송금결제 방식 다른 결제방식의 사용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무역결제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기존 연구들에 나타난 결정요인들이 사례분석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 하고자 한다. 셋째, 향후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무역거래대금결제방식의 확산에 따른 제주지역 무역업체들의 전자무역결제시스템 활용 현황 및 대금결제 방식을 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책을 알아보고 제주지역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구조적인 환경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솔루션을 모색하여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수출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8) 이상진·김형철, “URBPO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자결제 제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5, pp.295-314.

제3장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대금 결제 현황

제1절 제주지역 무역 현황

1. 제주지역 수출 동향

제주지역 2017년 수출은 2016년 대비 18.0% 증가한 152백만 달러, 수입은 10.6% 증가한 408백만 달러, 무역수지는 255백만 달러 적자 추정되고 있다. 수출에 관하여는 세계 경기회복 및 교역량 증가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하였다. 2017년 11월까지 제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0% 증가한 138백만 달러로 지난해 2016년 전체실적 128백만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수출물량도 9.8% 증가한 31,965천 톤을 기록 하였다.

산업별로는 전자전기제품 및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이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하여 수출증가를 주도 하였다.

<표 3-1> 제주지역 구조별 수출실적

(단위 : 천달러, %)

구분	전자전기 제품	농림 수산물	기계류	플라스틱 고무가죽	화학공업 제품	생활용품	섬유류 등 기타
2016년 (1월~11월)	32,016 (-11.6)	60,345 (11.9)	13,631 (81.3)	268 (-16.4)	3,594 (15.2)	2,277 (-5.4)	2,084 (-32.0)
2017년 (1월~11월)	65,589 (104.9)	54,012 (-10.5)	5,939 (-56.4)	4,365 (1,530.7)	3,967 (10.4)	1,940 (-14.8)	2,420 (16.1)

자료 : 한국무역통계

품목별로는 모노리식집적회로가 11월까지 102.9% 증가하며 단일품목으로 처음으로 5천만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소라, 생수, 플라스틱제품, 다이오드, 백합, 전복이 증가(과거 최대수출 품목은 2010년 넉치류 35백만 달러) 하였다.

<표 3-2>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천달러, %)

구분	품목명	2016년		2017년 1~11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모노리식집적회로	35,516	-5.6	62,514	102.9
2	넙치류	27,758	10.9	22,758	-8.1
3	소라	4,865	-22.3	4,270	4.4
4	사출식금속주형	4,177	452.2	3,493	-5.9
5	생수	3,289	13.6	3,310	11.3
6	기타플라스틱제품	-	-	3,266	0.0
7	다이오드	1,001	63.2	2,461	329.5
8	백합	3,122	70.5	2,256	2.3
9	전복	1,626	271.2	2,018	31.7
10	녹차	2,633	153.6	1,781	-25.9

자료 : 한국무역통계

지역별로는 모노리식집적회로가 수출 1위품목인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등 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만 수출이 증가하고 다른 대륙권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홍콩은 모노리식집적회로가 전년 동기 대비 178.7% 증가한 42,471천 달러가 수출되어 전체 수출액의 93%를 차지했으며 염장해삼(780 ", 3.5%)과 소고기(335 ", 412.5 %)도 호조를 보여 일본을 제치고 수출 1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백합(2,252천 달러, 2.1%)과 전복(1,987 ", 31.2%)외에 넙치류(14,141 ", △15.6%), 감귤농축액(1,375 ", △40.6%), 북조기(1,322 ", △5.4%), 파프리카(1,038, △0.5%) 등 주요품목이 감소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문제에도 불구하고 모노리식집적회로(7,252천달러, 31.2%), 골판지 원지(1,102 "), 기초화장품(367 ", 242.0%), 녹차(337 ", 1,265.9%), 소주(247 ", 16.1) 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넙치류(7,793 천 달러, 3.9%), 모노리식집적회로(1,254 ", 72.1%), 조각공예 품(1,004 ", 62.5%), 무(836 ", 45.6%), 기초화장품(600 ", 244.7%) 등 대부분의 품목 이 증가했으나

지난해 차량용펌프(2,790 ") 수출급증 기저효과로 전체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대만은 플라스틱제품(3,266천 달러), 다이오드(2,460 ", 384.3%), 모노리식집적회로(2,199 ", 61.3%) 등이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은 모노리식집적회로(1,836천 달러, 7,950.4%), 섬유기계류(523 ", 87.8%)가 증가하고 있다.

<표 3-3>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천달러, %)

구분	국가명	2016년		2017년 1~11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홍콩	23,359	-23.5	45,681	134.4
2	일본	42,761	15.3	32,756	-12.7
3	중국	16,651	123.9	14,961	3.1
4	미국	16,743	21.1	14,388	-6.9
5	대만	3,752	-3.4	8,840	169.5
6	베트남	2,290	-62.8	4,693	125.8
7	독일	5,291	-12.4	3,920	-15.8
8	태국	2,907	-18.7	2,020	-26.7
9	인도	2,219	611.8	1,682	-24.0
10	인도네시아	1,004	345.2	1,453	74.2
총 계		128,994	6.5	138,233	21.0

자료 : 한국무역통계

2. 제주지역 수입 동향

수입은 기존 최대 수입품목인 면세점용 소비재 수입은 보험세를 보였으나 테마파크 건설 등에 따른 취미오락기구 및 납치류 양식용 사료 수입이 급증하여 전체 수입실적 증가에 일조 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최대수입품목인 화장품류는 주춤했으나 오락용구, 향수, 다이오드 및 블루화이팅스의 수입이 급증 하고 있다.

<표 3-4>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

구분	품목명	2016년		17년 1~11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화장품류	66,869	-0.9	62,090	-0.2
2	오락용기구	648	364.1	15,554	2,298.6
3	향수	13,540	2.9	15,056	21.9
4	스카시위스키	14,985	-13.7	12,972	-6.2
5	다이오드	11,059	-33.9	12,251	38.7
6	블루화이팅스	2,793	0.0	10,473	290.2
7	사료용옥수수	12,803	-14.6	9,973	-16.5
8	담배	9,305	28.0	9,963	16.8
9	화물선	1,152	-82.1	8,211	612.6
10	선글라스	4,747	-12.2	6,159	33.4
총 계		368,823	8.7	371,543	9.8

자료 : 한국무역통계

국가별로는 중국(무선통신기기, 화물차), 프랑스(향수), 일본(기초화장품), 이탈리아(오락용구), 영국(위스키), 독일(오락용구, 블루화이팅스) 등이 증가하고 있다.

<표 3-5> 주요 국가별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

구분	국가명	2016년		17년 1~11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미국	98,530	35.0	70,488	-21.5
2	중국	49,480	25.3	55,857	20.7
3	프랑스	47,872	-12.5	49,758	14.5
4	일본	26,698	-19.7	34,047	39.2
5	이탈리아	18,556	24.4	22,584	28.1
6	영국	20,745	-10.0	22,322	14.8
7	독일	5,365	15.7	14,272	177.7
8	대만	8,289	-29.3	13,781	85.4
9	캐나다	9,351	42.9	12,355	40.9
10	네덜란드	4,385	79.8	7,977	87.2
총 계		368,823	8.7	371,543	9.8

자료 : 한국무역통계

2017년 제주 수출은 152백만 달러로 지난해 실적(128〃)을 경신하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2년 이후 6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수출 지속하고 있다.

1) 최근 6년간 수출실적

2012년 : 107백만 달러 → 2013년 103백만 달러 → 2014년 106백만 달러 → 2015년 121만 달러 → 2016년 : 128백만 달러 → 2017년 : 152만 달러로 가격효과가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수출물량도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액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수출물량 증가율(%) : (15년) △9.1 → (16년) 25.4 → (17년 1월~11월) 9.8

- 수출단가 상승률(%) : (15년) 25.2 → (16년) △15.1 → (17년 1월~11월) 10.3

최근 세계경제가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제주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경기 호황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한 것이 수출 호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아시아 수출현황 : (16년) 98,896천 달러, 9.8% 상승) → (17년 1월-11월) 114,964만달러, 33.1% 상승

화장품류가 사드에도 불구하고 중국수출이 증가하고 미국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4년간의 감소추세에서 증가로 전환된 점도 긍정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한 품목이 수출 전체를 주도하는 수출 구조는 동 제품의 경기가 침체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6> 수출 1,2위 품목 점유율

(단위 : 천달러, %)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11월
전체실적	103,285	106,415	121,068	128,994	138,233
넵치류	30,020 (29.1%)	24,760 (23.3%)	23,210 (19.2%)	25,743 (20.0%)	20,856 (15.1%)
모노리식 집적회로	1,426 (1.4%)	22,205 (20.9%)	37,613 (31.1%)	35,516 (27.5%)	62,514 (45.2%)

자료 : 한국무역통계

수출 호조세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지 못한데다 반도체 제조방식 특성상 도외생 산으로 인해 낙수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는 미미하고, 농수산물도 지난해를 정점으로 금년에 감소로 전환됨으로써 일부 품목은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에는 세계경기 회복, 글로벌 IT 경기 호조 등의 호재가 지속될 전망이 되고 또한 아시아·미국·유럽 등의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한 세계 경기회복에 힘입어 글로벌 교역 증가세 지속될 거라 본다.

- 경제성장률(% , IMF, 16년 → 17년 → 18년) :

(세계) 3.2 → 3.6 → 3.7, (한국) 2.8 → 3.2 → 3.0

- 2018년에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00원 내외로 미국 금리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회복,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등으로 전년(2017년 1월~10월 평균 1,138원)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2018년 제주도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한 163백만달러 전망되고, 미국 등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수요 회복과 IT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도 수출 추세는 2017년에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데다 6년 연속 1억달러 이상 수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기반이 정착되었으며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모노리식집적회로가 올해의 탄력성을 바탕으로 견조한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제품인 다이오드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계 반도체 경기호황이 하반기부터 하락기에 접어들 경우 이를 대체할 농수산품의 한계상황으로 인해 수출물량이 뒷받침되지 못해 이외의 침체를 겪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표 3-7> 공산품/농수산물 수출추이

(단위 : 천달러, %)

구분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월~11월	
		수출	증감률	수출	증감률	수출	증감률	수출	증감률
총 계		106,415	3.0	121,068	13.8	128,994	6.5	138,233	21.0
공산품		40,321	75.9	59,287	47.0	60,274	1.7	84,221	39.7
1	집적회로	22,205	1,457.2	37,613	69.4	35,516	-5.6	62,514	102.9
2	금속주형	-	-	756	0.0	4,177	452.2	3,493	-5.9
3	다이오드	1,329	69.4	613	-53.9	1,001	63.2	2,461	329.5
4	조각공예품	1,904	551.3	2,336	22.7	1,663	-28.8	1,487	-7.6
5	골판지원지	-	-	-	-	381	0.0	1,439	387.3
6	기초화장품	2,663	-1.7	1,601	-39.9	838	-47.7	1,200	64.5
7	선박엔진	2,082	130.3	1,657	-20.4	232	-86.0	0	-100.0
농수산물		66,079	-17.8	61,770	-6.5	68,680	11.2	54,012	-10.5
1	넙치류	26,080	-16.0	24,832	-4.8	27,758	11.8	22,758	-7.2
2	소라	5,522	-29.8	6,263	13.4	4,865	-22.3	4,270	4.4
3	생수	2,559	22.1	2,895	13.1	3,289	13.6	3,310	11.3
4	백합	3,098	-52.2	1,831	-40.9	3,122	70.5	2,256	2.3
5	전복	456	-58.8	438	-4.0	1,626	271.2	2,018	31.7
6	녹차	899	-64.4	1,038	15.5	2,633	153.6	1,781	-25.9
7	감귤	3,721	-25.5	3,127	-15.9	2,495	-20.2	1,600	-35.9
8	감귤농축액	3,117	7.8	1,679	-46.1	2,347	39.8	1,382	-40.3
9	복조기	74	0.0	820	1,009.1	1,476	80.0	1,322	-5.4
10	큰느타리버섯	3	251.1	406	13,749.4	1,100	170.9	1,183	19.9
11	파프리카	1,694	16.8	1,808	6.8	1,141	-36.9	1,038	-0.5

자료 : 한국무역통계

제주도 수입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458백만달러로 294백만달러로 무역적자 전망된다. 수출입 증가세 지속으로 무역 6억달러 달성이 기대되며, 수출액과 무

역액 모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 수입구조는 관광 상품용 소비재 위주로 되어 있는데다 세계경기 및 국내경기 여건과는 상관관계가 적어 국내외 관광객의 소비여력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표 3-8> 2018년 수출입 전망

(단위 : 천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전망)
		1~11월(실적)	연간(추정)	
수출 (증가율)	128,994 (6.5%)	138,233 (21.0%)	152,250 (18.0%)	163,821 (7.6%)
수입 (증가율)	368,823 (8.7%)	371,543 (9.8%)	408,035 (10.6%)	458,223 (12.3%)
수 지	-239,829	-233,310	-255,785	-294,402

자료 : 한국무역통계

제2절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대금 결제 현황

제주지역 무역의 결제형태도 우리나라의 무역 결제형태에 다르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역결제 방식에 따라 크게 신용장방식과 추심방식, 송금방식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이중 신용장 방식은 은행의 수입자에 대한 지급확약으로 수출업자와 수입자의 거래안전을 보장하는 결제방식으로서 지난 수십년간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위의 절의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과거 신용장 방식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신용장 방식의 비중이 하락한 반면 송금방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출의 경우에는 2000년을 기점으로 송금방식이 오히려 신용장 방식을 제치고 주결제 형태로 정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제주지역 금융기관 무역업체 거래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대금결제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9> 2017년 제주지역 무역업체 결제대금 현황

(단위 : 천달러)

업체 번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수출	-	-	-	-	-	-	-	-	-	-	-	-	-	-	-	47	-	58	-	-	-	77	79	-	-	44	-	-	-	-	-	-	-	-	-	-	-	-	-	86	-	-
수입	10	14	15	16	22	23	25	29	16	36	37	42	44	32	50	-	53	-	69	76	79	-	-	82	59	-	105	106	105	98	111	-	114	123	127	131	149	-	170	170		
무역외 (해외 송금)	-	-	-	-	-	-	2	-	15	-	-	-	-	13	-	5	1	-	2	-	-	2	2	-	36	52	-	-	2	11	-	-	12	4	1	2	-	65	-	2		
일람물 (L/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한부 (L/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9	-	-	-	
D/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T	10	14	15	16	22	23	25	29	16	36	37	42	44	32	50	47	53	58	69	76	79	77	79	82	59	44	105	106	105	98	111	115	114	123	127	131	-	86	170	170		
실질 합계	10	14	15	16	22	23	27	29	31	36	37	42	44	45	50	52	54	58	71	76	79	79	81	82	95	96	105	106	107	109	111	115	126	127	128	133	149	151	170	172		

자료 : 제주은행(2017년)

<표 3-9> 2017년 제주지역 무역업체 결제대금 현황

(단위 : 천달러)

업체 번호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합계
수출	-	-	-	-	-	335	-	-	-	-	-	531	-	562	-	560	-	-	-	-	-	-	745	1,009	-	-	1,471	2,310	-	2,025	4,701	-	636	15,391
수입	115	241	267	304	285	-	387	454	438	18	506	-	561	-	385	18	642	699	828	482	632	926	-	-	1,413	2,183	661	42	3,707	1,744	-	7,570	15,566	43,412
무역외 (해외 송금)	60	-	-	1	20	-	-	-	30	464	-	19	4	17	211	60	-	-	2	368	245	-	343	184	-	373	470	278	-	80	3,325	2,768	229	9,780
일람물 (L/C)	-	-	-	-	-	335	-	-	-	-	-	32	32	-	-	-	642	-	-	-	-	-	-	-	975	-	-	-	3,707	-	-	-	7,070	12,793
기한부 (L/C)	-	-	67	140	-	-	387	454	-	-	-	-	-	-	-	-	-	-	-	-	562	-	-	-	438	-	-	-	-	-	-	-	-	2,197
D/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P	-	-	-	-	-	-	-	-	-	-	-	-	-	562	-	-	-	-	-	-	-	-	-	-	-	-	-	-	-	-	-	3,162	-	3,724
T/T	115	241	200	163	285	-	-	-	438	18	506	499	528	-	385	578	-	699	828	482	69	926	745	877	-	2,183	2,132	2,352	-	3,769	4,701	3,891	9,132	39,437
실질 합계	175	241	267	305	305	335	387	454	468	482	506	550	565	579	566	638	642	699	830	850	877	926	1,088	1,193	1,413	2,556	2,602	2,630	3,707	3,849	8,026	10,338	16,431	68,583

자료 : 제주은행(2017년)

<표 3-10> 2010년 제주지역 무역업체 결제대금 현황

(단위 : 천달러)

업체 번호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수출								49		5		69				98		81	98	111	117															121				
수입		36		43	44	46	48					64		32	88	55	101						118	121	132		148			189		172	9	211	223		259	283		
무역외 (해외 송금)	33	6	43		2				53	55	53			37	1	35	3		20	3	6	5	10	10		136	150	2	170	179		190	27	198	5	8	121		2	289
일람물 (L/C)																																		211						
기한부 (L/C)																																				223			275	
D/A																																						18		
D/P																																								
T/T		36		43		46	48	49		5	64	69	32	88	55	98	101	81		111	117	118	121	132		148			189		172	9				103	259	8		
실질 합계	33	42	43	43	44	48	48	49	53	55	58	64	69	69	89	90	101	101	101	101	117	122	128	131	132	136	150	150	170	179	189	190	199	207	216	231	242	259	285	289

자료 : 제주은행(2010년)

<표 3-10> 2010년 제주지역 무역업체 결제대금 현황

(단위 : 천달러)

업체 번호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합계
수출				380					265						885	735		411	676			4,054	4,285	29	1,950	4,657		8,022		8,472	9,145	16,528	61,291	
수입							376	503	136	459	599	702	710		21	230	1,226		1,106	2,582	3,956	117	8	1,441	2,563	4,112	8,605	7,431		7,699			931	48,050
무역외 (해외 송금)	323	361	362		400	487	118		138	86		5	103	816	84	112		881	122	529		18	143	3,605	1,055	216	2,333	6,702	7,312	7,706	7,222	8,868	14,973	67,126
일람물 (L/C)									128			663						271				3,956	110		62	87		5,037		8,022		5,211		23,758
기한부 (L/C)								47		433					30													4,474		7,699			77	15,840
D/A																															3,261			4,251
D/P																																		
T/T				380			376	456	221	25	599	69	710		876	955	1,226	140				4,061	3,321	1,408	4,426	8,769	1,646	2,957				9,145	17,382	61,621
실질 합계	323	361	362	380	400	487	494	503	539	545	599	707	813	816	990	1,077	1,226	1,292	1,904	3,111	3,956	4,189	4,436	5,075	5,568	8,985	10,988	14,133	15,334	15,405	15,694	18,013	32,432	176,467

자료 : 제주은행(2010년)

제주지역 금융기관을 통한 무역업체의 대금 결제 현황을 보면 <표 3-9>에서 보는 것과 같다.

금융기관 자료를 통한 무역업체 거래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거래현황 : 총 무역 거래업체 73개 업체, 거래대금 총 68,583 천\$ 거래를 하고 있다.
- 수출업체는 13개 업체, 수출 거래대금은 8,389 천\$
- 수입업체는 55개 업체, 수입 거래대금은 25,381 천\$
- 수출/수입 병행 업체는 5개 업체, 총 거래대금은 25,033 천\$
- 기타 무역외(해외송금) 현황은 40 업체, 거래대금 9,780 천\$
- 일람불 신용장 거래현황 : 7개 업체, 12,793 천\$
- 기한부 신용장 거래현황 : 7개 업체, 2,197 천\$
- 추심방식 : D/A(인수인도조건) 거래현황 : 없음
- 추심방식 : D/P(지급인도조건) 거래현황 : 2개 업체, 3,724 천\$
- T/T(송금거래) 병행 거래현황 : 66개 업체, 39,437 천\$
- T/T(송금거래)만 이용 : 58개 업체, 24,955 천\$

제주지역 금융기관 거래현황에 의한 자료를 보면 무역결제 형태를 크게 신용장 방식(일람불, 기한부)과 추심방식(D/A, D/P) 그리고 송금방식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표 3-9> 대금결제 현황을 보면 대금결제 방식 중 송금방식을 이용하는 비중이 건별기준 85%, 금액기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거 무역거래에서 많이 의존하였던 신용장방식은 2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제주도 무역업체의 대금결제 방식이 송금방식으로 주 결제형태가 정착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수출입결제방식에서 공히 신용장 방식이 크게 줄어든 것은 다음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인력감축으로 신용장방식의 복잡한 절차와 각종 수수료 등이 요구되는 신용장 방식의 메리트가 하락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선진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상호 신용도가 제고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수출 주종상품으로 반도체 관련 모노리식 집적회로, 농수산물 등 소량·수시 주문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해외 바이어와의 직거래에서 현지 Stock Sale을 중시하는 해외 현지법인 및 지사와의 거래확대가 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제주지역 특성상 무역업체의 규모가 중소기업체라는 절차가 간소하고 수수료가 적은 송금방식을 선호하는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순송금방식은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대금을 미리 받는 방법이므로 가장 좋은 대금회수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출업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결제방식이다. 대금부터 미리 받고 상품을 만들어 선적하는 것이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

다만, <표 3-9>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송금방식이지만 동시지급송금방식(COD, CAD)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상세히 분석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

반면 신용장(L/C) 방식 수출은 급격히 줄고 있다. 2018년 일람출급(At Sight) 신용장 및 기한부신용장(usance L/C) 방식은 거래 건수 대비 19% , 결제금액 14,990 천\$ 금액 대비 비중은 17%를 차지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무역대금 결제 비중에 비추어볼때 2016년의 수출대비 9.4%, 수입대비 17.8%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전체 무역 결제방식 비중과 비교하여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신용장 이용 상황이 비슷하다.

신용장 방식은 일람불과 기한부 모두 합쳐 20% 이하로 낮아졌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신용장 방식 수출 비중이 60%를 넘어 한국은행에 집계된 ‘신용장 내도액’이 수출 선행지수로 활용되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다.

추심방식(D/A, D/P) 수출 비중은 6% 이내로 우리나라 수출입 결제형태에 비교해 보면 전체 결제대금 대비 2016년 9.4%에서 6%로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결제대금 방식에서는 추심방식 비중이 낮아 졌다.

<표 3-7> 제주지역 무역업체 대금결제 형태 변화를 볼 때 시사점 및 과제를 보면 제주지역 무역업체 결제방식의 선진국형으로의 이행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가속화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용장 방식의 급감으로 L/C 래도액이 수출 선행지표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한편 송금방식이 주결제방식으로 정착함에 따라 이의 수출보험 요율 인하 검

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송금방식이 수출의 주결제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송금방식 수출보험요율을 D/P등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적 검토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 현지 금융제한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지만, 개도국지역으로 수출선 다변화전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당 부분이 Stock Sale에 의존(주로 D/A방식)하고 있으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에 묶여 수출증대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대금 결제 변화요인 및 시사점

1. 대금 결제 변화요인

1) 환경적 측면

(1) 수출입 시장의 환경변화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수출입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대금 결제 시스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국제화와 신용사회로서의 진전으로 무역당사자간의 결제방식인 직접 계약방식의 증가이다. 직접계약방식의 요구는 국내 기업보다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 거래선의 요구가 크게 작용하였다. 당사자 간의 직접계약거래를 하는 경우 수입기업은 물론 수출기업은 은행에 대한 거래비용과 복잡한 서류처리에 따른 거래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수입자의 경우 물품의 도착과 대금지급 사이의 기간만큼 재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채무의 발생시기가 늦추어지는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한다.

둘째, 해외 상대방과의 직거래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의 거래증가이다.⁴⁹⁾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 동안 해외 상대방과의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거래관계의 편의성을 위해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를 요구함에 따라 자연히 국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본사와 해외 법인의 거래는 신용위험에 따른 대금회수나 물품인도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방식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국내 가전 메이커들은 거래비용 및 거래시간을 절감하면서 수출금융을 조기화 할 수 있는 사후결제방식 중 하나인 Open Account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송금방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

49) 허은숙, 「한국기업의 수출거래조건 결정요인에 관한 실정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년에서는 기업특성과 수입기업 및 시장특성변수가 수출결제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 이들 간의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출결제조건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규모와 수입기업의 신용위험을 들면서 무신용 방식의 증가는 대기업의 본지사간의 거래증가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나 Open Account 방식은 순수한 단순송금 방식과 구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종 수출상품의 등장이다. 그동안 한국 수출상품은 경공업제품에서 중화학으로 꾸준히 변화였으며 특히 최근 10년 동안 이러한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혁명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컴퓨터, TFT-LCD, 무선통신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제품을 중심으로 교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 또한 지난 몇 년간 이들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동시에 수입 유발적 산업구조를 지남에 따라 이들 제품의 수입도 동시에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제품은 종래의 섬유, 철강, 원유 등과 달리 거래주문이 소량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거래의 편의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송금방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의 노력이 높아졌고 동시에 중소기업의 설립 증가도 송금방식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무역업체의 인력감축과 더불어 기존 의 거래 안전성을 보장하던 신용장방식이 복잡한 절차와 거래지연, 각종 수수료 등 부대비용 증가로 신용장방식보다는 송금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신용장방식은 과거은행의 수입자에 대한 지급보장으로 거래 안정성이라는 메리트가 크게 작용하였으나 무역업체의 인력감축으로 복잡한 절차와 각종 수수료 등을 요하기 때문에 신용장방식의 기피현상이 높아졌다. 이들 제주도내 중소기업들은 무역실무에 익숙하지 못해 신용장거래 기피현상이 있는데다 거래특성상 소규모로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절차가 간소하고 은행 수수료가 적은 송금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다.

다섯째, 대기업에 비해 제주도내 중소기업들은 수입의 경우 신용도 높지 않은 관계로 신용장 개설이 용이하지 못한 것도 신용장방식 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수출입 시장의 경쟁심화

수출시장은 초기에는 공급자 중심의 생산자시장(seller's market)의 성격을 갖지만, 수출상품의 수명주기가 성장단계로 접어들면 공급자 수가 증가하고 품질과

가격 면에서 균일화가 진행되어 경쟁이 한층 심화되었다. 그러므로 수출업자는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판매 전략을 시도하게 되며 수입자의 선호를 고려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즉 수출업자는 수입자에게 보다 싼 가격과 편리한 공급처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을 촉진시킬 기회를 얻기 위하여 이러한 수출시장의 경쟁심화는 공급자 중심의 수출시장을 수요자 중심의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 수출시장에 대한 평가는 보다 많은 시장기회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구매자 시장의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수출업자가 무역거래 조건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수입자의 기호에 맞는 가격조건 제시를 위한 선택에 중점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무역대금 결제방식에서 신용장방식은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시 은행에 충분한 담보를 제시하거나 채권이전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수입자에게 상당한 자금압박과 과도한 이자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D/A나 D/P 방식은 수출업자의 호의와 신용공여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담보금의 적립이나 이자부담이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출업자는 대금 결제 상 무리가 없다면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인 무신용장방식을 수출경쟁전략의 수단으로 택하여 거래선을 확보하여야 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저하되어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요 수출시장이 생산자시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후발 개도국과 중국 등의 성장으로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거래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수입자의 거래상 편의를 외면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수출경쟁 전략의 수단으로 수입자 편의 중심의 대금결제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경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3) 수출채산성 약화

기업은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협소한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무역을 통하여 시장의 기회가 많은 해외로 판매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경쟁조건 측면에서 해외시장이 보다 유리할 때 수출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러한 의미에서 수출은 기업이 국제화하는 제일의 전략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국내의 임금상승, 원자재가격의 불안정 등의 원인으로 국제가격경쟁력이 저하되면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어 무역을 통한 이익이 감소된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감소하였을 때 수출기업은 거래비용이 비교적 비싼 신용장방식의 거래 조건으로는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가 어렵게 되어 비용절감의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거래비용이 저렴한 무신용장방식의 결제조건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2) 제도적 측면

(1) 외환 수수료의 증가

무역대금은 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출환어음의 매입이나 송금의 경우 외환매매가 이루어져 결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무역대금결제에 따르는 외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이것은 대금결제방식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무역대금결제방식별 외환 수수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업자는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외국환은행에 매입신청을 하여 수출대금을 결제한다. 이때 은행은 환어음매입(negotiation)⁵⁰⁾ 하게 되는데 이때 결제방식과 결제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환어음 매입시 발생하는 외환 수수료를 환가료(exchange commission)라고 한다. 따라서 환가료는 외국환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할 때 수출업자에게는 어음금액을 즉시 지불하지만 은행에서는 그 어음을 외국은행을 통하여 상환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므로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해외에서 상환 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부담 징수의 의미를 갖게 된다. 환가료 변화의 주된 요인은 환율의 변동과 외국환은행들이 각기 부과하는 연환가료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율이 오르거나 외국환은행이 연환가료율을 올리는 경우 외환수수료부

50) 환어음매입(Negotiation):수입자가 물품의 선적을 완료하고 지정은행(매입은행)이외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지정은행이 구매함으로써 자금을 사전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매입시에 해외에서 자금이 입금될 때까지의 우편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환가료)를 받고 우편료 등을 징수한다. 이대우, 양의동, 「신용장론」, 두남출판사, 2014, p.279

담은 그 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환가료율의 경우 수출대금이 외화로 입금되는 만큼 외국환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므로 은행들의 외화조달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IMF 관리체제하에서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환리스크가 증가하였고, 은행의 신용평가등급이 추락하면서 외화조달이 어렵게 되어 수출환어 음매입 및 무역신용을 기피하게 되었다. 특히, IMF체제하에서 가산금리는 그 이전 수준인 LIBOR 초과 1%를 훨씬 상회하여 4.5~12% 수준으로 상승하여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무역대금결제방식의 변화 중에서 특히, 송금방식의 급증은 이러한 환가료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외환수수료율은 1998년 4월에 IMF 이전과 비교하여 무려 876%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환수수료율의 증가는 수출업자들의 수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수출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송금방식의 수출은 신용장관련 수수료와 환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대금의 조기결제를 통하여 환율변동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수출업자가 외환수수료만큼 수출가격을 인하하여 송금방식으로 수출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유인이 되고 있다. 이는 환율이 급등하였던 IMF시대에는 타당성이 있었으나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는 현재 원화가치의 상승에 따른 환율하락의 경우 그 타당성이 없어진다고 하겠다. 또한 송금방식이나 D/A, D/P 방식의 경우에도 수표 또는 환어음을 추심 전 매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장방식과 동일하게 환가료의 지불을 해야 하고 특히 송금방식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금조달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2) 수출시장의 다변화

우리나라의 무역대금 결제방식의 변화는 이러한 수출시장 다변화에 적지 않게 기인 한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후진국과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제방식의 선택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냉전 종식과 함께 우리나라의 동구 사회주의권과의 수출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들 지역은 주로 외화가 부족한 국가들이며 대외거래에서 주로 공급자신용이나 연불지급방식, 연계무역 등 특수한 결제방식을 선호함으로써 자금부족을 해

결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 지역은 이자율이 높고 신용장 개설시에 수입 담보금을 높게 요구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수입자들은 신용장방식보다 D/A, D/P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 대한 신용장 거래시 신용장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경제상황이 열악한 국가에서 발행된 신용장을 우리나라 은행에서 인수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따라 수출대금 회수 곤란 사태가 초래되었고 중국 거래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수출 미수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불안 등으로 수출업자들이 수입국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수출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송금 등에 의한 즉시 결제가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업자들이 적극적인 수출 확대를 기대하여 수입자 편의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대금결제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증가는 무역대금 결제방식에서 신용장방식에서 무신용장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결과 수출미수금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3) 구조적 측면

(1)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본·지사 간 거래의 확대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과거에는 비교열위화 되는 산업의 해외진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비교우위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내 국제 분업에 바탕을 둔 국제생산의 증가를 가져왔다. 해외직접투자와 이에 따른 기업 내 국제 분업의 확산은 상품의 무국적화를 비롯한 새로운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⁵¹⁾의 증가라 할 수 있다. 기업 내 무역은 소유권의 이전 없이 이루어지는 국제간의 거래로서 국내본사와 해외현지법인간에 생산 및 판매 등의 기업 활동을 둘러싼 유기적인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거래를 외부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화(internalizatio

51) 신황호, 「다국적기업과 해외투자」, 두남출판사, 2009, p.72

방대한 해외생산거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부품 등 중간체산성을 최적생산 지점에 집중하여 규모의 경제하에서 대량생산한 후 다른 해외자회사나 모기업간에 내부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UN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수출의 경우 32.5% 수입의 경우 41.2%가 내부화 되어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이 31.8% 수입이 30.3%가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

n)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내 무역은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해외자회사 또는 해외자회사간의 거래의 결과로써 나타난다.

(2) 수출입 상품구조의 변화

최근 세계경제가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제주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경기 호황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한 것이 수출 호조에 기여하고 있다. 전기전자부문에서는 현지판매법인 또는 기업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해외 매수인과의 거래가 지속됨으로써 무신용장 방식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기계류, 철강 등에서도 해외 수입자와 장기적인 거래가 정착되면서 상호신뢰도가 높아져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나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 필요한 신용장방식보다 간편·저렴한 무신용장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제품의 경우 기계설비, 선박, 대형 플랜트 등 대규모 시설재의 수출을 동반하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시설재의 수출은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연불수출(deferred export)⁵²⁾의 형태를 갖는다. 연불수출은 물품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는 외상수출의 성격을 갖고 있어 D/A, D/P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가 주종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신장은 무역대금 결제방식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단순송금방식이 아니고 D/A 거래나 연지급신용장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영세 제주도 무역업체들은 신용장(L/C)를 전담할 부서와 비용 및 시간상의 단점 등으로 수출/수입 대금결제방식에 있어 신용장 방식을 최소화 하고 있다. 중동 등 불가피한 위험 국가를 제외하곤 대부분 회사들이 T/T방식을 주요 결제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52) 연불수출(deferred export)이란 물품대금의 결제를 물품이나 서류를 받은 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후에 몇 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2. 결제방식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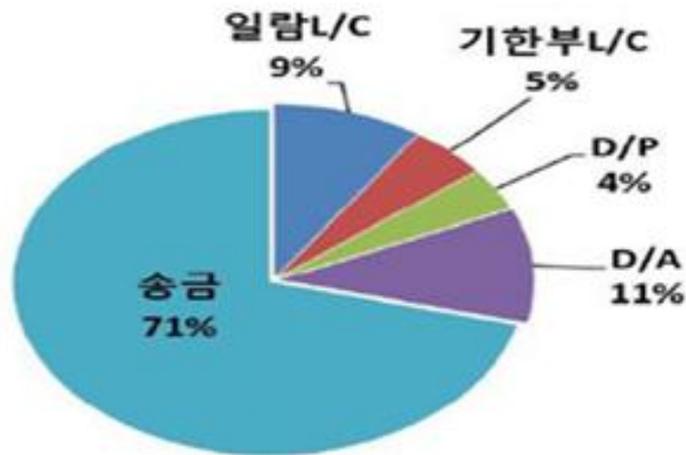
1) 송금거래에 따른 수출 미수금 증가

(1) 미수금 증가의 원인

수출거래의 경우 송금거래가 늘고 있으나 주로 선적 후 송금비중이 증가하면서 미수금 위험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불황기에는 수출미수금 사고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그림 3-11> 송금으로 인한 미수금 발생 비중을 보면 71.1%로 타 결제방식 대비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본 지사 간 거래나 선박 수출의 경우에는 미수금 발생 비중이 낮는데 선박 수출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으로서 선박 수주자가 기성고에 따라서 송금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으므로 미수금발생 위험은 낮다고 본다.

<그림 3-11> 결제방식별 미수금 발생 비중



(단위 : 비중 %)

자료 : KITA 설문조사

<표 3-12> 최근 5년간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현황

(단위 : 억원, %)

기업 규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말	계
대 기업	인수실적	1,728,336	1,677,974	1,517,339	1,264,090	1,122,250	644,396	7,954,385
	지급금액	1,902	2,934	1,868	2,192	2,871	1,559	13,326
	보험료수익	6,395	5,852	5,158	5,700	6,915	2,136	32,155
	사고건수	982	867	976	1,563	1,065	469	5,922
	사고금액	6,259	4,169	4,140	5,210	4,837	3,512	28,127
	사고율(%)	0.11%	0.17%	0.12%	0.17%	0.26%	0.24%	0.17%
	계류금액	2,982	2,047	1,685	2,122	1,623	1,021	11,479
중견 기업	인수실적	139,452	155,139	168,134	134,141	151,120	124,894	872,880
	지급금액	124	2,790	3,682	1,002	4,521	1,684	13,804
	보험료수익	337	363	386	386	564	237	2,272
	사고건수	223	243	586	272	337	145	1,806
	사고금액	1,922	1,370	6,343	1,181	2,879	472	14,167
	사고율(%)	0.09%	1.82%	2.22%	0.76%	3.01%	1.35%	1.58%
	계류금액	17	97	3,293	286	1,196	119	5,008
중소 기업	인수실적	155,216	203,690	216,681	283,128	292,307	184,331	1,335,352
	지급금액	1,437	1,173	2,148	1,907	1,858	879	9,402
	보험료수익	774	530	637	799	670	251	366
	사고건수	1,476	1,461	1,883	2,036	1,631	993	9,480
	사고금액	2,245	3,617	3,113	2,977	2,620	2,372	16,943
	사고율(%)	0.98%	0.62%	1.05%	0.70%	0.66%	0.48%	0.70%
	계류금액	2,455	2,839	2,872	3,621	3,314	5,645	20,747
합계	인수실적	2,023,004	2,036,802	1,902,154	1,681,359	1,565,677	953,622	10,162,617
	지급금액	3,463	6,896	7,697	5,100	9,251	4,123	36,532
	보험료수익	7,506	6,745	6,181	6,884	8,148	2,624	38,088
	사고건수	2,681	2,571	3,445	3,871	3,033	1,607	17,208
	사고금액	10,426	9,155	13,596	9,368	10,336	6,356	59,237
	사고율(%)	0.17%	0.34%	0.41%	0.31%	0.60%	0.43%	0.36%
	계류금액	5,454	4,952	7,850	6,029	6,134	6,785	37,234

자료 : 김병관 의원실

이와 같이 수출의 경우 송금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라 수출미수금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2) 수출보험 부보를 통한 미수금 리스크 관리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출보험에 부보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업계는 송금거래로 인한 미수금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각종 수출보험료 지원정책을 숙지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 시·도 지자체별로 업체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책이 제공되므로 수시확인 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철저한 기업의 신용조사 실시

수출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조사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저조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표 3-13>에서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신용조사 실시현황을 볼 수 있는데 필요시하는 기업이 35.8%에 불과하고 신용조사를 하지 않는 기업도 33.8%에 이르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기업이 신용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 3-13> 신용조사 실시 실태

(단위 : %)

구분	첫 거래시	매 거래시	1년에 한번	필요시	하지않음
비율(%)	23.8	3.2	3.4	35.8	33.8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용 시 건당 33,000~110,000원으로 해외 제휴선을 통한 신용조사 원가(약 15만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하며 이미 조사가 된 바이어DB는 1일~3일 내로 받아볼 수 있으나 신규바이어 조사는 국가에 따라 통상 3주정도 소요된다. 국내신용조사 이용방법과 국내외 신용조사 기관을 살펴보면 <표 3-14>와 <표 3-15>과 같다.

<표 3-14>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방법

서비스명	내 용	기 간
보고서 구매	3개월 이내 기평가된 보고서 다운로드	당일
조사신청	A~G. R(최저) 등급평가 후 정보제공	평균 3주
DB검색	사이버영업점에 연결된 조사기간 DB 검색	2~3일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자료 재구성

<표 3-15> 국내외 신용조사 기관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국내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신평신용정보 - 신용보증기금 - 한국기업데이터 - (주)나이스 디앤비 - 한국수출입은행 - Kotra 해외사무소(KBC) 	http://www.ksure.or.kr http://www.kisamc.com http://www.kodit.co.kr http://www.kedkorea.com http://www.nicednb.com http://www.koreaexim.go.kr http://www.kotra.or.kr
해외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UN & BRADSTREET (미국) - Auskunft W. Schimmelpfung (독일) - EULER HERMES SFAC (독일) - EXPERIAN (영국) - COFACE (프랑스) - SINOSURE (중국) 	http://www.duncorp.com http://www.schimmelpfung.com http://www.eulerhermes.fr/fr http://www.experianpic.com http://www.coface.com http://www.sinosure.com.cn

자료 : 각 회사 홈페이지

2) 해외채권 확보 강화

(1) 적절한 복합결제 방식의 활용 (송금 + L/C)

바이어 신용이 의심될 경우 선수금 및 복합결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바이어 신용이 부족한 경우 거래를 유보해야하며 바이어가 100%에 가까운 사후송금 방식이나 추심, 수표결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사기를 의심해보고 철저한 신용조사 실시가 필요하다. 수출대금결제 관련 사기거래 형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3-16>과 같다.

<표 3-16> 대금결제관련 사기 유형

서류위조	- 유명은행을 이용한 송금확인증 위조 - 현지법을 거론하며 선적서류(B/L)가 있어야 송금이 가능하다고 속임
수표거래	- 1차 선적분을 개인수표로 결제한 후 2차 선적분에 대해 바이어가 잠적, 이후 수표 부도처리
현지은행 결탁	- 현지은행과 공모하여 T/T 송금증 발행 - L/C 거래서 consignee가 개설은행이 아니고 바이어가 항공수입 후 잠적 - 중국의 경우 B/L 사본으로 물품 수취 후 잠적
거래 재촉	- urgent, immediate 등 용어를 자주 사용 - 선적을 재촉하며 항공운송을 요구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대금회수가 우려될 경우 복합결제를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원자재 구입 및 생산비 명목으로 선수금을 50%이상 확보하고 잔금은 L/C로 수령해 미수금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2) 동시결제방식(CAD/COD)의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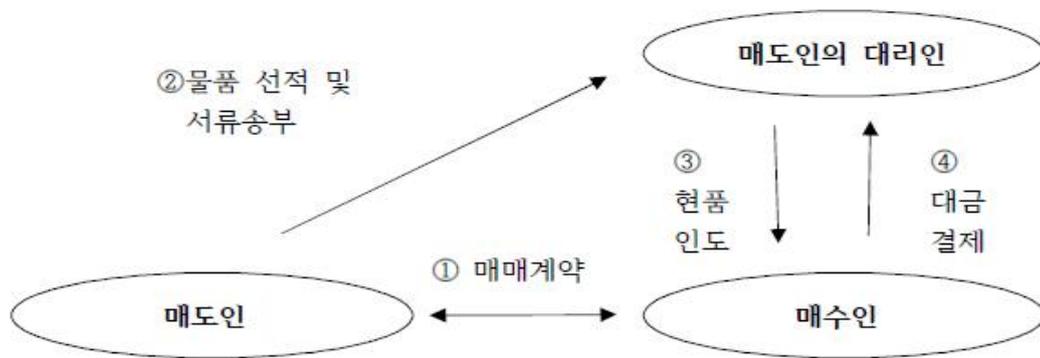
가. 서류인도 결제방식(CAD :CashAgainstDocuments)

서류인도 결제방식(CAD)⁵³⁾은 매도인이 수출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출지역에 있는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인도하면서 수출대금을 결제 받는 방식이다. 매수인의 대리인은 매수인과의 대리인계약을 통해 수출지역에서 매수인을 위해 매수인이 원하는 상품을 매도인으로부터 구매해주며 이러한 구매행위는 전적으로 매수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행된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결제방식은 매도인이 수출상품을 생산하여 지정된 선박에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제시한 후 수출대금을 결제받기 때문에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의 지시를 받아 선적서류의 인수를 거부하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무역위험에 노출된다. 이때 매도인은 선적된 상품을 수입지역에서 회수하여 판매해야 하

53) 서류인도현금지급(CAD :Cash AgainstDocument)는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수입자 소재지의 외국환은행에 송부하여 수입자가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대금결제 방식이다.이 방식은 D/P방식과 유사하나 일반적으로 환어음 이 발생되지 않는다.배정환, 「전계서」,p.403

며 상품가격이 매매계약에 명시된 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그 차액과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무역위험에 직면한다. 반면 수출지역에 있는 매수인 대리인과 매도인이 공모해 상품이 선적되지도 않았는데 수입대금이 결제될 수 있는 무역위험이 매수인에게 발생할 수도 있다. 서류인도 결제방식에 의한 거래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3-17>과 같다.

<그림 3-17> 서류인도 결제방식에 의한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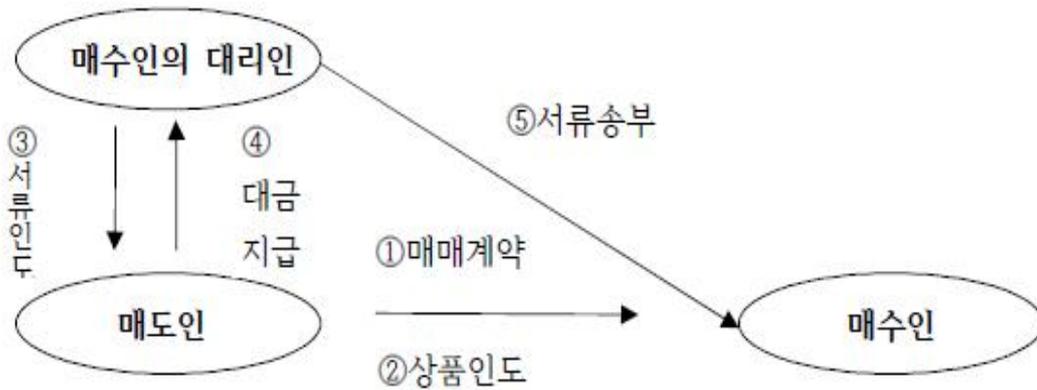
나. 상품인도 결제방식(COD :CashOnDelivery)

상품인도 결제방식(COD)⁵⁴⁾은 매도인이 수출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입지역에 있는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수출상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면 매수인이 상품을 검사하고 상품을 인수하면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이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거래와 동일하다. 매수인은 대금결제 전에 물품확인이 가능하므로 무역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 반면 매도인은 수출지역에서 수출항까지 수출상품의 운송과 수출통관을 해야 하고 수출항에서 수입항까지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을 이용하여 상품을 운송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수입통관뿐만 아니라 수입항에서부터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상품을 운송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의 무역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결제방식이다. 대신 그만큼

54) 물품인도 현금지급(Cash On Delivery :COD)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여 수입국에 있는 자신의 지사나 대리인에게 물품을 송부하면 매수인이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상환으로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COD는 수출업자 에게 대금회수불능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용장 결제와 함께 일정비율에 대해서 이용된다. 배정환, 「전계서」,p.403

거래가격은 높아질 수 있다.상품인도 결제방식에 의한 거래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3-18>과 같다.

< 그림 3-18> 상품인도 결제방식에 의한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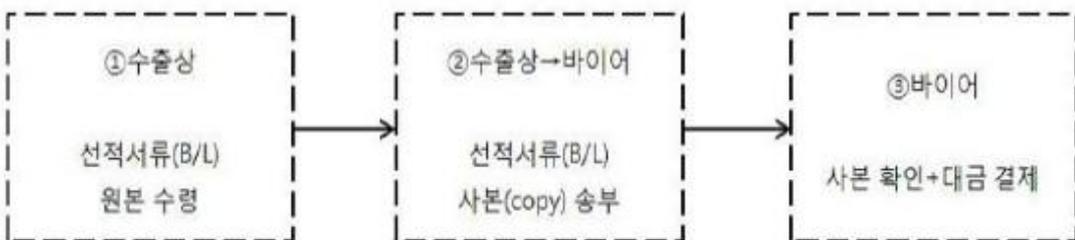


(3) 선적서류 사본을 활용한 신속거래 이용

원본서류를 가지고 있고 사본서류를 송부하여 통관 및 수출대금 결제시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선적서류(B/L)사본을 활용한 신속한 수출대금 결제 유도해야 한다.

수출업자는 대금지체 전까지 서류원본을 확보할 수 있고 바이어는 물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어 상호간에 WIN - WIN 가능하다. 현재 일부기업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는 바이어와의 신속한 거래시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선적서류사본을 활용한 거래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3-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9> 선적서류(B/L) 사본을 활용한 신속거래 이용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3) 전자결제시스템의 적극 활용

(1) 샘플 등 소액거래의 경우 소액결제제도(KOPS)이용

수입자로부터 T/T로 결제 받는 대신 수입자의 신용카드(VISA, MASTER)로 쉽고 전하게 결제할 수 있다.또한 서비스 이용요금이 건당 결제금액의 2.6% 수준이며, 이어 지급불능 시 수출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결제대금은 바이어가 카드결제를 완료한 +5영업일 이후에 수출업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원화 입금되어 신속한 대금회수 가능하다.

<표 3-20> 소액결제 제도의 특징

구 분	내 용
서비스 대상 분야	- 샘플 및 소액수출
결제 가능 카드	- Visa, Master Card
서비스 이용제한	- 신용카드 인증번호 미 보유시 이용불가 - (Verified by Visa / Master Card Secure Code)
결제 대금 지급	- 바이어의 카드결제 완료시점 + 5영업일 후 수출업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
수출 보험 대상	- 사고발생시 미화 1만불 이하 결제건에 한해 월 누적 최대 미화 만불까지 수출보험 수혜
서비스 이용료	- 건당 결제금액의 2.6% - 수출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원화정산 - 회원가입비 및 연회비 무료
결제 사이트	- Kops.buykorea.org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 전자무역 결제방식 적극 활용

소액거래의 경우에는 트레이드카드 제도를 활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 없이 계약체결이행, 대금결제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고 운송계약과 물품검사 및 보험가입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소액거래는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무역거래의 경우에는 볼레로(Bolero)시스템을 이용하면 무역거래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전자메시지로 전환하여 제공하므로 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선하증권의 권리이전을 볼레로사에 권리등록제도(TitleRegistry)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볼레로서프(Bolero SURF)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전자서류의 생성, 확인, 송부, 소유권이전 절차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현재 전자무역거래 비중이 높지 않으나 향후 무역거래에서는 전자서류에 의한 무역거래 비중을 높혀 나갈 것으로서 신용장거래에 따른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제주도 은행을 이용한 소액결제 확장

제주도 은행의 환전 업무를 좀 더 확대하여 수출입관련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정부에 의해 환전 업무는 수행할 수 있게 허락된 상태로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로부터 해외송금가능기관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해외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CorrespondentContract)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어 무역거래에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무역금융의 거래 단계 및 시간단축으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동일한 정보를 다수의 무역 관계자에게 동시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 무역 절차 효율화, 관련 서류 보안성 강화, 무역 프로세스의 스마트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제4장 제주 지역 무역업체의 활성화 방안

1. 법제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

1) 관련 국제 법률의 통일화 및 촉진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법적 인정에 관한 문제는 결국 법률적 준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과 함께 국제 규칙 및 모델법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자국의 관습에 맞게 수정하거나 임의 해석하여 도입한 국가들이다.

이상적인 방법은 국제회의를 통한 범세계적 통일법률의 제정 및 강제적 시행이다. 물론 이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각국의 환경 및 문화가 상이하며 정치, 경제적 특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UNCITRAL은 모델법을 제시해 각국의 법률제정에 참고하도록 권고하였다. UNCITRAL 모델법은 현재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기본적으로 UNCITRAL 모델법의 개념 및 구조를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모델법의 개정을 통해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규 전반에 걸친 강제적 시행은 어렵더라도 강행규정을 두어 최대한 통일적인 모습의 전자무역 결제 시스템 지원 법률이 전 세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전자문서의 효력 및 증거력에 대한 인정과 전자서명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강행규정으로의 전환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국제기구 차원에서 이에 대한 홍보 및 법제적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바야흐로 전 세계는 단일 경제권의 형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권역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지만 결국 그 내부적 체계는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는 단일 생활, 경제권을 이루고 있음에도 기존의 관습 및 법체계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다. EU의 사례에서 보듯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률체계와 통합법 체계의 상충 및 수용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자국의 관습을 전

자무역 관련 법률에 적용했던 국가들의 법률 개정작업을 지원하고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역 강대국의 법적 통일성 확보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면 통일된 법체계의 확립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된 법체계의 확립은 통합 시스템의 구축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 분명하다.

2)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세부 규칙 제정

시스템의 오류 및 분쟁의 발생에 따른 해결책 및 절차의 제시는 전자 무역 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해결방안이다. 이러한 부분의 부재는 이용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시스템 참여를 주저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사용자가 직면할 수 있는 통신회선 상의 문제로 인한 오류 및 거래 불이행에 대한 대응 절차를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eUCP 규정상의 전자기록 변형에 따른 규정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eUCP 상에서는 전자기록의 변형이 일어난 경우 이에 대한 통지를 신용장 제시자에게 하고, 즉각 신용장 심사기간은 정지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상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과 관련한 변형의 경우에도 같은 처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면출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이로의 출력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고의성 판단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델법의 참고를 통한 각국의 법률 제정 시에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도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전자적 방식과 서면 방식의 거래에 차이를 두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은, 국내법규라 하더라도 무역거래의 특성상 해당 법률이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저해요인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법률의 경우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준들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활성화를 촉진 시키는 중요한 요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무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국 기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법률적 이해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활성화가 되고 말 것이다.

2. 운영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

1) 상호 호환성 기능 확대 및 강화

현재까지는 EDI가 중심이 된 폐쇄형 네트워크가 주로 이용되어 왔다.

EDI는 폐쇄성을 통해 보안은 확보가 되었지만 각 이용자가 EDI도입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이용료를 다소 높게 책정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활성화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인터넷과 ebXML을 통한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정부에서 비용적 측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계 및 학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과 운영당사자 자체적인 비용절감의 노력이 지속되어야만 한다.

문제는 ebXML을 포함하여 아직도 진행 중인 치열한 표준싸움에 있다.

표준기술로 채택되기 위해 기업 간에 벌이는 경쟁은 시스템의 이용단가를 낮추고 보다 진보된 시스템 개발의 유인으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과다할 경우 표준채택이 지체되고 더 나아가 표준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타 기업에서 이것의 사용을 거부하는 등 문제점이 더 많이 지적 되고 있다. 따라서 표준채택도 중요하지만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서로 간에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이것이 표준채택의 가장 큰 요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떠한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더라도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이를 위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도 시스템의 전면적 교체에 따른 막대한 비용낭비를 막을 수 있다.

2) 은행 중심의 통합 시스템 구축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주도적인 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권역별 국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마련이나 주요 무역참여업체들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결국 각 시스템 간의 호환성 측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여러 번 강조 하였다. 결국 호환성을 위해 ebXML로의 포맷전환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것이 각 시스템 간의 호환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각자가 구축한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내의 이해관계 및 수익창출을 위해 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빠른 확산을 위해서는 다른 해결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은 무역결제 절차를 통합하여 시스템 자체적으로 무역결제 절차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 과정에서 무역거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던 은행이나 정부 등의 역할을 배제하거나 축소시키고, 시스템의 참여는 유도하지만 그 기능적인 측면만을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은행의 경우 전통적인 무역 거래 방식에서 오랜 시간동안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것은 무역 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은행의 기능적 역할을 무역거래의 참가자들이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세기를 걸쳐 쌓여온 신뢰성과 관념적 역할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여도 새롭게 시장에 선보이는 시스템이 갖출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따라서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은 은행의 이러한 사용자들의 신뢰도 및 관념적 역할을 인정하고 은행을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내부로 끌어들여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은행은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기존에도 원활하게 운영되어 오던 은행의 시스템을 고수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기능적인 측면의 저해뿐만 아니라 무역거래의 참여자들에게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던 은행의 참여 저조로 인한 사용자의 신뢰성 확보의 실패라는 문제도 낳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통합시스템의 구축이다. 무역거래는 상이한 국가의 당사자들 간에 벌어지는 거래행위

이기 때문에 대금지급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특수한 대금지급 절차는 대부분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은 대부분 은행이 같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전자무역 시스템의 확산 및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은행들은 210개국, 10,000여개 은행, 증권사, 기업고객이 참여하고 있는 SWIFT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자적으로 신용장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SWIFT 시스템을 활용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전반으로의 확장을 실시하면 은행의 입장에서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화된 추가비용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 시스템의 구축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문은 전자선하증권이다. 은행이 SWIFT를 통해 구축한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측면이 바로 전자선하증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SWIFT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선하증권모델을 시스템 적으로 구축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SWIFT 시스템에서는 신용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신용장과 선하증권은 결국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된 서류, 증권이기 때문에 신용장의 전자적 취급에 더해 선하증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만 포맷에 추가함으로써 선하증권을 전자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SWIFT 상에 전자선하증권을 구현하는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현재 SWIFT 시스템에서는 고유코드를 통해 취급 은행 및 지점을 표현하고 있다. ISO가 제시한 코딩 시스템에 따라 SWIFT는 이용자들에게 개인키와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것은 BIC(Bank Identification Code)라고 불리며 모든 가입자는 다른 가입자의 코드를 검색할 수 있다. 즉, SWIFT 시스템 상에서 은행 등의 시스템 참여자를 식별하는 방법은 문자로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BIC을 넣어 자동적으로 해당 이용자를 인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용장의 각 항목 및 기재사항을 코드로 분류하여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코드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코드를 지정한 것과 같이 선하증권 발행 운송회사에 대한 코드를 추가함으로써 이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디지털 코드화된 신용장의 항목들은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과 비슷한 항목

이 많아 이에 대한 적용은 어렵지 않다. 은행 간 메시지 전송으로 시작한 SWIFT 시스템이 현재 발전을 거듭하여 고객과 은행 간의 메시지 전송 타입인 MT798을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전자선하증권의 취급을 위한 새로운 MT(Message Type)의 개발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신용장 교환시스템을 개량하여 전자선하증권에도 적용 한다면 은행은 적은 비용으로 전자무역 결제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은행을 통한 통합 시스템의 구축은 전자무역에 필요한 각종 전자 서류를 은행 및 SWIFT 시스템에 호환성 있는 포맷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각 무역참여자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무역 서류를 시스템에 접근하여 손쉽게 취급하고 다시 은행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만 여기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SWIFT 시스템의 가격 합리화이다.

지금은 은행 및 대형기업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SWIFT이지만 전자선하증권에 그 영역을 확대하면 운송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무역업자, 중소기업 등도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참여하기엔 EDI 기반의 SWIFT 시스템의 가격은 큰 장벽이다. 따라서 가격적인 경쟁력만 갖춘다면 사용자들의 보안에 대한 우려, 부정적인 인식 등을 해소함은 물론 저렴한 가격까지 갖춰 높은 수요를 보일 것이다.

사실 이러한 통합 시스템에 대한 은행의 의지는 지금까지 크지 않았다.

이미 SWIFT 시스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다시 말해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의 규제가 강화되고 바젤III체제로 인해 은행의 무역관련 서비스에까지 그 규제의 손길이 닿게 되었다. 이것은 은행의 수익성 하락을 야기할 것이므로 은행은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를 개발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3. 정책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

1) 전자무역 단일창구 추진을 통한 지원 강화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정책적, 법률적으로 전자 무역 결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 및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 주도적으로 무역포털이 만들어지고 관련 법률의 개정 역시 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자무역의 발전에 긍정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기 때문에 타국에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련된 전자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지금까지는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던 전자무역 지원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중소무역업체에게는 국가 산하의 여러 기관 및 지자체에 접근하여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 및 기간 등을 살피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업무만 해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도 유지하면서 전자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면 사용자들의 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전자무역 단일창구의 이용증가도 꾀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효율성을 꾀하고 이를 통해 지원절차를 단순화하면 사용자는 불필요하게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을 줄이고 중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없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자무역 단일창구를 전자무역 네트워크라는 거시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역참가업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자 무역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 및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유입된 사용자들에게 관련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자무역 관련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실무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지원정책으로 인해 단기간의 실적을 강요하는 모습은 무역업체에 맞지 않다. 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전자무역 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펼친 지원정책은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2) 사용자 맞춤 지원 정책의 추진

사용자의 특성에 맞춘 구분된 지원정책의 실시를 통해 정부재원의 낭비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대기업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이 가진 효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증가와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거래량이 크고 많은 협력, 하청업체 및 거래국가를 보유한 대기업의 시스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대금결제 및 SCM, 자사관리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협력 및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결국 대기업에게는 비용적 측면의 접근 보다는 대기업이 보유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지원정책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결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단일 물동량을 크게 보유한 대기업들의 전자무역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이와 관계된 선사와 운송회사 등에게 전자무역 시스템 도입의 동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가격혜택과 시스템 사용에 관한 무상교육 등 초기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자무역 결제시스템과 같은 이용자 참여형 네트워크 시스템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도 이제는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비즈니스에는 익숙하나 이것이 무역 전반에 걸쳐 도입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비용적 문제이다.⁵⁵⁾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시스템 가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제공업체에 중소기업 사용자에게 대한 비용지원 및 세금 혜택 등을 실시하여 빠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관련 교육의 무상 실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시스템을 확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용자 확보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은 PA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자무역 시스템은 물론 e-B/L의 확산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을 포

55) 김희철 등 (2011),전계서,p.38.

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의를 통해 전자무역 시스템을 확보한다면 세계경제 및 무역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이용자, 국가를 확보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것은 단일국가로 가졌던 시스템 활성화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 유럽 등 강대국들과의 시스템 도입 및 호환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행보이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결제방법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거치고 있는 시점에서 IT의 활용과 응용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무역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무역환경의 변화 요인은 공급자위주의 시장에서 구매자위주의 시장으로의 무역환경의 변화와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금융환경 또한 변화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한국무역협회 발표 기준으로 수출 결제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단순송금방식(T/T, M/T) 57.2%, 사후 또는 동시 송금방식(COD, CAD) 9.9% 송금에 의한 방식이 전체 결제비중에서 6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수입의 경우 단순송금방식(T/T, M/T) 및 사후 또는 송금방식(COD, CAD) 및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의 결제비중이 전체 69.6%가 송금에 의한 결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제주지역 무역업체 결제 비중을 보면 전통적 방식인 신용장 거래건수 비중 19%, 금액기준 21.8% 차지하고 있고, 추심방식은(D/A, D/P) 건수 및 금액 비중이 5% 이내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 송금방식 비중은 거래건수 비중 90%, 금액 비중 57%가 결제로 진행되고 있다.

무역협회 기준 전체 수출입 결제형태별 결제방식 비중과 제주지역 무역업체의 결제방식 비중을 비교해 보면, 제주지역의 표본의 차는 있을 수 있으나 신용장 방식은 20%이내, 송금방식 비중은 60%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지역 무역업체 수출입 대금결제 방식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대금 결제방식과 비슷한 추세 및 비중으로 결제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 무역대금 결제방식도 단순송금방식이 주 결제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고 하겠다.

무역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 간의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전자적 환경으로의 변화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거래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서로 간에 말 한마디 주고받는 일조차도 수일이 소요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지구 반대편의 상대방과도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e-mail을 통해 큰 비용부담 없이 업무관련 서류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변화는 무역환경에 엄청난 시간·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무역거래 전 과정에 걸쳐 이러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자화에 대한 연구 및 관련 기술의 개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시행 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수 세기를 이어오며 발달했던 기존의 무역거래 관습 및 특수성으로 인해 완전한 전자무역의 실현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 특수성이 여타의 비즈니스 환경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분야인 결제분야의 전자화는 많은 연구 및 전자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전자결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던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및 이를 지원하는 법률, 제도를 분석해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던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전자신용장과 관련하여 SWIFT 시스템을 살펴보고, 무역의 전자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BOLERO, TradeCard, Identrust 등의 서비스는 전자무역결제의 편리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인되었지만,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한 지급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볼레로나 스위프트넷 등을 이용하는 거래는 주로 B2B거래에서 이용된다. B2C, C2C와 같은 거래에서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전자무역 결제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던 활성화 저해요인들을 도출해 본 결과, 기존의 거래방식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지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인해 각국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 법적 통일성 확립이 미비하며 신흥국 및 저개발국은 아직 전자무역에 대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자화된 시스템의 사용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오류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보상책이 있어야 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명시한다면 사용자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저해요인으로 상호 호환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폐쇄형 시스템에 의해 시스템이 구축되어 그 호환성이 매우 부족했으나 그로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점차 인터넷 기반의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

환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호환성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시스템 간에 협의와 제휴를 통해 이를 운영측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비용문제 또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무역대금결제 전자화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층을 넓게 보고 이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비용자체의 부담은 크지 않지만 대금결제 이외의 무역 절차와 호환성이 부족하여 비용이 이중적으로 부담되는 문제점이 있다. 전자신용장의 경우 은행 SWIFT 시스템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무역참여자들이 비용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던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 전자선하증권 모델의 경우 선하증권을 기반으로 한 대형 화주들을 주 고객으로 한정하여서인지 비용자체가 매우 높아 중소기업 등 중·소규모의 무역거래 참여자들의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사용자들의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저해요인이다. 기존의 거래 관습을 고수하고 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에서 컴퓨터를 통한 업무의 처리에는 이제 익숙해져 있지만 컴퓨터를 통한 거액의 이동 및 자금의 관리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을 구성하면서 은행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은행의 참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을 주도적인 시스템 참여자로 대우하기보다는 은행의 기능만을 시스템 내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그동안 무역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은행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에서는 그 지위를 잃은 것으로 느껴져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했다. 이러한 은행의 참여 저조는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 세기를 걸쳐 이어져온 무역거래에서 은행의 역할은 그 기능적으로도 매우 중요했지만 사용자들 에게 뿌리내린 깊은 신뢰성은 새롭게 선보이는 전자무역 결제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것이다. 따라서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은 은행의 기능적, 관념적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시스템 내부적으로 포함시켜 은행의 참여를 유도해야 했으나 이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은행은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채 이미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 하고 있는 기존 비즈니스를 고수하면서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통합 및 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저해요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전자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무역환경을 분석해보고 이에 맞는 새로운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 시스템의 마련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은 이미 SWIFT망을 통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사용자 측면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무역 시스템 및 서류를 지원하는 것을 통해 빠르게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은행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보다 빠른 사용자 확산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송금 거래방식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미회 수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금결제의 증가는 수출대금관련 사고율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무역거래 당사자는 거래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리스크의 감소를 희망하고 있다.

즉 송금방식의 결제비중의 증가로 인하여 수출대금결제는 사전에 신용위험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수출회사는 그대로 신용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회사는 물품인도 후 대금결제는 전적으로 수입상의 신의성실에 의존하므로 외국수입회사의 철저한 신용조사와 수출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해외신용조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신용조사비용 때문에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이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래규모가 큰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 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하면 내용면에서 유리하다고 하겠다.

수출보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보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극적인 수출보험 부보를 통한 미수금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외에도 거래 초기나 거래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다가 수입자의 신용이 확인될 경우에 송금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처음부터 전액 사후송금방식이나, 추심, 수표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수입자 측에서 선적서류의 사본을 수령하기 전에 선적통지만 있으면 즉시 송금해주는 사전송금방식이 보다 수출업자 측에게는 유리하지만 수

입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시결제방식(COD/CAD)방식으로 변환함으로써 어느 정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 외에 대금결제 전까지 원본서류의 송부를 미루고 사본을 수입자에게 송부하면 수입자는 은행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받아 통관하고 수출회사는 대금결제확인 후 원본서류를 송부해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KOPS(KotraOnlinePaymentService)를 이용하여 수입자의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하는 방법을 KOTRA(한국무역진흥공사)가 해외시장 개척자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이용요금은 건당 결제금액의 2.6% 수준이며 바이어의 지급불능 시 수출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결제대금은 수입업자가 카드결제 완료 5영업일 후에 수출업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원화로 입금되어 신속한 대금회수가 가능하다. 기존 신용장 방식이 복잡한 거래절차와 높은 비용으로 수출업자가 신용장방식을 피하고 있는바 이는 미회수 대금의 결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증신용장(StandbyL/C)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보증신용장은 수출업자의 단순한 지급청구 또는 채무불이행 입증서류의 제시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신용장에 비해 수수료 등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보증신용장은 화환신용장에 비하여 거래절차의 편의성과 시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며 선하증권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도 매우 유용하다.

또한 전자무역거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로서 해외의 고정 거래처가 아니면 아직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전자무역거래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서류심사상의 불편한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

이처럼 본 연구는 국제무역의 전자결제 활용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각 분야를 통합하여 고찰하고, 제주지역 무역업체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분석하고, 전자결제 활용 방안 에 대해 미약하다마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자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각 사용자의 인식 및 참여유인에 대한 최신의 연구 자료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부족했다. 이러한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문헌>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전자무역촉진법, 제2조, 제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1항.

김태환(2012), “전자결제 인프라 현황과 향후 전망”,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p.586.

채진익(2011),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SWIFT의 TSU BPO의 도입과 과제”, 무역상무연구□제49권, p.409-411.

남현숙(2016), “전자무역결제제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p.69.

김재두(2014), “전자자금이체의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제38권 제2호, p.294.

한국은행(2016), “신종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p.79.

안병수 · 조상현 · 류승열 · 김수홍 · 박윤희 · 장정일,(2009), “선진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전자무역 개선방안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보고서, p.15.

김지환(2012), “아마존의 신사업 성공 비결: 레버리지 전략”, 「SERI 경영 노트」 제162호, 2012. 9. 6. 참조.

양희천(2000), “e-비즈니스의 발전방향과 성공전략”, 「NICE」 제18권 제3호, p.279.

- 손영화(2013), “전자상거래법-이론과 실제”, p.25.
- 채진익(2014), “전자무역론”, p.45, 그림 1-5.
- 최용민·김우중(2010), “무역절차의 그린화, 전자무역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무역 협회 TradeFocus, Vol.9No.64”, pp.9-15.
- 류건우 등(2011), “전자무역과 웹 비즈니스”, 계명대학교 출판부, p.358.
- 배상목·전용식(2009), “E-COMMERCE, E-TRADE를 위한 전자결제론”, 이담, p.165.
- 김철호, “U-Trade 시대의 전자무역과 국제무역관습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
김용재(2008),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5호, pp92-93.
- 안동규·박찬주(2011), “유비쿼터스 시대의 EDISystem”, Global, pp.10-11.
- 류희수(2006), “공개키 암호의 안전성”, 과학교육논총, 제19집, pp.193-196.
- 정우열·이선근(2007),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대칭형 혼합형 암호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제2권 제3호, p.166.
- 김용재(2010),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실무”, pp.219-220.
- 김용진, 박종삼, “전자신용장거래의 운용 메커니즘에 관한 소고”, 무역학회지, 제22권 제4호, pp.277 - 279.
- 조현숙(2004), “전자무역에서 ebXML 활용을 위한 과제”,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pp.253-255호.
- 이동철(2002),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론”, MJ미디어, pp.70-76.
- 구종순·허은숙(2007), “무역결제”, 박영사, pp.384-392.
- 윤영한, “국제무역결제”, 우용출판사, p.148.
- 박종수·채훈(2011), “무역실무론”, 삼영사, p.160.
- 정현수·이동일, “전자거래시스템 및 관련법 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4권 제5호, p.131.

- 이재홍(2002), “글로벌 B2B 무역거래의 Escrow 결제에 관한 접근”, 창업정보학회지, 제5권 제2호, 창업정보학회, pp.193-215.
- 김태환(2012), “전자결제 인프라 현황과 향후 전망”,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pp.585-610.
- 유순덕·이민수(2011), “신용기반의 해외무역 거래를 위한 최적화된 전자결제 시스템”, 정보과학회논문지, 제38권 제6호, 한국정보과학회, pp.381-394.
- 김형철, 송진구(2016),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에스프로 결제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31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pp.285-301.
- 박중석·이길남(2014),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9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pp.145~167.
- 강동윤·최광호(2014), “중소수출기업의 신용위험관리:무역보험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제15권 제2호, pp111~130.
- 정재우·이길남(2015), “글로벌시대 한국의 무역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점과 제언”, 무역학회지, 제40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pp.167-202.
- 조원길(2014), “거래비용 측면에서 전자신용장 활용 전략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6권 제1호 pp247-269.
- 이상진·김형철(2015), “URBPO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자결제 제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pp.295-314.
- 이대우, 양의동(2014), “신용장론”, 두남출판사, p.279.
- 신황호(2009), “다국적기업과 해외투자”, 두남출판사, p.72.

<인터넷 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통계청)

http://www.kita.net/newsBoard/domesticNews/view_kita.jsp?sNo=42955

(한국무역협회)

<https://www.swift.com/our-solutions/corporates/drive-trade-digitisation/the-trade-services-utility> (SWIFT)

http://sk.co.kr/mag/mag0004/contents/01specialreport/txt/sptxt03_20004.htm

(SK텔레콤)

(국문초록)

제주 지역 무역업체의 전자무역결제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거래 과정 전반의 전자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오랫동안 관습에 따라 행해지며 굳어진 거래방식과 서로 다른 국가 간에 긴시간의 협의를 통해 형성된 무역 관련 규칙, 제도 등 무역거래 특유의 성격으로 인해 기존의 무역실무를 전자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제부문의 전자화는 무역거래 과정 중 전자적 방식으로의 전환 및 활성화가 가장 더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및 제주지역 무역환경의 변화가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금융환경 또한 변화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전자적 환경변화는 무역환경에 엄청난 시간·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가져오게 되었고 무역거래 전 과정에 걸쳐 이러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자화에 대한 연구 및 관련 기술의 개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시행 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전자결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던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및 이를 지원하는 법률, 제도를 분석해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던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각 분야를 통합하여 고찰하고, 제주지역 무역업체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분석하고, 전자결제 활용 방안에 대해 미약하다마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E-trade Payment Systems of Local Trading Firms in Jeju

Jong-Il Moo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Electronic trade has been proceeding rapidly in the overall process of transactions in trade. However, Existing practice of trade has difficulty in transforming to the electronic based trade, which is due to methods of transactions stuck in established custom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in trade such as trade systems or rules set by the longstanding agreement between countries. Furthermore, It seems that the section of electronic payment is in the slowest lane in terms of progress of electronic trading transaction.

The change of payment plan from a Letter of Credit (L/C) to remittance basis seems to affect the trading environment in JeJu, even Korea. Electronic based trade has led to tremendous efficiency in aspects of time and cost and has been followed by development of technologies, relevant laws and systems in electronic trade to increase such efficiency. This study is to identify barriers obstructing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trade payment system and suggest concrete and realistic measures on the barriers, based on the analysis of existing electronic trade payment system and related laws.

This study also has some significance : First, to consider and integrate each area of electronic trade payment system. Second, to analyze payment systems of local companies in Jeju. Third, to provide solutions in terms of the activation plan of the electronic trade payment system.